

新羅 皇龍寺 九層木塔 刹柱本記와 그 舍利具

黃 壽 永*

I. 前 言

II. 收拾經緯

III. 塔銘—刹柱本記

IV. 舍 利 具

1. 金銅外函
2. 金銅內函
3. 銀製舍利塔
4. 金銅八角舍利塔
5. 銀製小圓盤
6. 青銅小蓋
7. ㄱ字形金具

8. 金 盒

9. 銀 盒

10. 유 리 珠

11. 青銅小圓筒

12. 青銅方形小函

13. 銀製圓盒

14. 蓮花盤形具

15. 金銅花紋片

〔附〕 仲和三年銘 金銅圓套

V. 心礎위의 方石—宴坐石

附 言

I. 前 言

三國史記·三國遺事를 통하여 皇龍寺에 관한 記事는 적지 않다. 創建의 因緣과 그 年代, 堂塔의 建立, 三尊像의 鑄造에서 國王의 行幸, 法會의 開席 등 皇龍寺에 관하여서는 그 始創에서 비롯하여 歷代의 적지 않은 記事를 찾을 수가 있다. 또 그보다도 遺事 卷 3 塔像篇에 있어서는 그 初頭의 迦葉佛宴坐石條에서 「其地即前佛時伽藍之墟也. 今皇龍寺之地即七伽藍之一也」라 하여 그 땅이 곧 前佛時의 伽藍의 터라고 하였으며 皇龍寺丈六像과 皇龍寺九層塔의 이곳 塔像 兩件을 넣어서 이 寺院의 緣起와 그 伽藍의 中心을 차지하였던 兩大 禮拜對象인 塔像을 기록하고 있다. 三國遺事가 塔像篇을 엮어놓은 것은 佛教信仰의 兩對象이 이들 塔像에게 있는 곳에서 由來된 것이기도 하겠거니와 오늘에 이르러 遺事가 이만한 塔像에 관한 文字를 傳하여 준 것은 우리 佛教美術의 研究를 위하여서도 더할 수 없는 多幸이었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우리의 上代文獻이 新羅寺院 중에서도 특히 이 皇龍寺에 대하여 記錄을 남겨준 것은 皇龍寺가 일찍이 차지하였던 높은 寺格을 따르는 것이며 창건 이래 신라의 역사와 信仰에서의 큰 比重을 따르는 것이다.

* 國立中央博物館長(文博), 美術史

과연 신라 一代를 통하여 都城의 中心에 자리잡았던 大皇龍寺는 그 규모나 莊嚴에 있어서도 新羅佛敎의 首位에 자리잡은 國利로서의 重大한 자리를 지녀 왔었다. 그리고 新羅가 衰亡한 후 고려 王朝에 이르러서도 이곳 寺院의 保護 특히 그 大塔의 維持를 위하여서는 새로운 王朝의 차별한 배려가 계속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그 까닭으로서 이 皇龍寺의 大塔이 後三國을 再結合한 王建太祖에 의하여 國家鎮護의 意義에서 새로운 注目을 받았으며 그 이후 이 塔에 대한 국가적 尊崇은 변함이 없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王建太祖는 建國初에 새로운 國都인 開京에 7層塔 西京에 9層塔을 각기 새로 建立하여서 「合三韓爲一家」⁽¹⁾를 기원하였거니와 新羅의 故土에 있어서는 皇龍寺大塔이 그대로 存續되고 있었기에 新塔을 建立하지 아니하고 이 大塔에 대한 保護를 加重하였던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觀點에서 百濟舊城에도 고려 建國初부터 같은 意義를 지니고 建塔된 遺構가 있었다고 생각하여 왔으며 그것이 혹시 百濟古都⁽²⁾의 宮墟인 오늘의 全北 益山郡 王宮面에 屹立하는 5層石塔으로 比定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여 왔다. 그리하여 佛力의 加護를 얻어 새로운 王朝를 세운 高麗로서는 國都和 北의 西京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 以南인 羅濟兩國의 故土에 이르기까지 그 舊都안에서도 中心에 자리잡은 땅을 택하여 佛塔을 重修 또는 創建함으로써 國土의 平和와 繁榮을 佛力에 祈願하였던 것이다. 이같이 皇龍寺는 三國시대 眞興王代에 國利로서 創立되었으며 善德女王代에 이르러 慈藏이 中心이 되어 大塔이 建立된 후 建塔의 發願이던 三國統一을 마침내 이루었으며 그후 10세기에 이르러 새 王朝와 交替되어서도 大塔은 여전히 두터운 信仰을 받아왔다. 그리하여 마침내 고려말 高宗代에 蒙古亂을 당하여 丈六像과 더불어 燒失됨으로써 前後 약 7百年의 運命을 끝내었던 것이다.

筆者가 本稿에서 論議하려는 것은 皇龍寺塔址에서 近年에 收拾된 一括遺物을 紹介하려는 곳에 局限되어야 하겠다. 그런데 그 遺物이란 學術調査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60年代에 들어서 全國을 橫行하던 盜掘輩의 손으로 掠奪된 것이기에 그 原狀이나 品目 등은 그들 손에서 攪亂되고 分離되어서 그만큼 混沌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비록 이들이 原來의 場所에서 遊離되고 교란된 遺物이라 하더라도 그들은 아직도 높은 學的價值를 지닌다고 判斷되었기에 필자는 數年來 그 整理를 期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1972年 10월에 이르러서는 塔銘判讀이 거의 끝났으므로 그 內容을 學界⁽³⁾에 발표하였으며 그후 다시 一年間 作業을 계속하여 이제 舍利莊嚴具의 整理가 一段落되었기에 그들을 이곳에 함께 묶어보려는 것이다. 이 皇龍寺塔址와 필자가 맺었던 因緣도 깊었거니와 그 整理와 研究의 課題는 學園을 떠난 現在의 필자로서는 過重한 일이었다. 그러나 收拾의 始初부터 이 舍利具에 關聯되었던 필자로서는 또한 不可避한 일이었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以下 章을 바꾸어 이 皇龍寺大塔址 中心에 마련된 巨大한 舍

(1) 高麗史 列傳 崔慤傳에

昔新羅造九層塔 遂成一統之業 今欲開京建七層塔 西京建九層塔 冀借玄功除群醜 合三韓爲一家

(2) 拙稿: 百濟 帝釋寺址의 研究 1972年 明知大學主催 百濟文化 第一回 심포지움 發表文概要

(3) 檀國大 東洋學研究所主催 第2回 東洋學學術講演論鈔 1972年 10月 28日

利孔에서 收拾된 舍利遺品 중 먼저 塔誌를, 그 다음으로는 殘餘의 교란된 舍利具에 대하여 圖版과 圖面을 中心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보고자 한다. 執筆에 앞서서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 大塔舍利的 收拾過程에서의 깊은 悔恨이라고 하겠다. 일찌기 無法者의 손에서 無慘하게 掠奪되어 換金의 對象이 되었던 우리의 至寶를 이같은 형태로나마 記錄에 남기고자 함은 그 같은 지난날의 우리의 不幸과 損失을 多少나마 補償함으로써 스스로를 달래고자 함이다.

II. 收拾經緯(圖版 1—5, 圖面 1)

상기한 바와 같이 신라의 大皇龍寺는 蒙古軍의 侵入으로 「塔寺丈六殿宇皆災」된 이후 다시는 그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못하였다. 이 災難의 해는 고려 高宗 25年(1238)이니 이 皇龍寺가 古新羅 眞興王 14年 癸酉(553)에 始創된 이래 千年 무려 약 700년의 星霜을 겪으면서 羅·麗 兩朝에 걸쳐서 寺歷을 이어왔던 것이다. 한편 신라 三寶 중에서 眞平王 玉帶를 除外한다면 이곳의 9層塔과 丈六佛이 각기 차지하였던 사실만으로서도 그 重大한 比重을 짐작할만하다. 그 중에서도 9層塔은 그 높이가 帝京을 鎮壓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建立因緣 그 자체에 신라 王朝와 國民의 宿願이 얹혀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그같은 護國護法과의 直結은 高麗 王朝에 계승되었으니 이 大塔의 3次의 重成에서도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고려 肅宗代의 重成(1096)을 最後로 高宗代의 災難후 다시는 復舊되지 못하였고 그 寺址에는 巨大한 7間4面의 方形礎石만이 金堂址의 三尊像 등의 臺座와 더불어 傳來하였던 것이다. 특히 方形基壇을 이루는 塔址를 중심으로 그 東南方에는 어느덧 村落이 자리잡았으며 심지어는 이 塔址 바로 위에 農家가 占據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皇龍寺址 특히 오늘에 保存된 東洋大塔의 遺址는 일찍부터 内外人의 注目을 받아 왔다. 특히 今世紀에 들어와서 日政期의 그들의 이른바 古蹟調査⁽⁴⁾에서 또는 專門學者⁽⁵⁾의 現地調査에서 이곳 堂塔址가 논의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外人에 의한 조사는 現狀과 文獻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였었다. 解放 후 1964년에 이르러 일찍부터 國家古蹟으로 指定保護되고 있는 이 寺址중에서도 상기한 바 塔址위에 자리잡은 民家를 撤去함으로써 이 寺址에 대한 제1次의 整備를 期하고자 하였다. 특히 이 方形의 塔址에서도 그 中央에 위치하여 왔던 巨大한 心礎石은 그 사이 調査者에 의하여 확인되어 오기는 하였으나 그것이 상기한 民家の 物담 사이에 끼어 있어서 그 자세한 考察을 어렵게 하여 왔던 것이다.

마침내 1964년에 이르러 文化財委員會의 承認을 거쳐서 上記한 塔址農家 一棟이 철거되었는데 그에 따라서 기왕에 노출되지 않았던 心礎石이 方壇中央에서 뚜렷하게 注目되었으며 이 巨

(4) 1922年度 古蹟調査報告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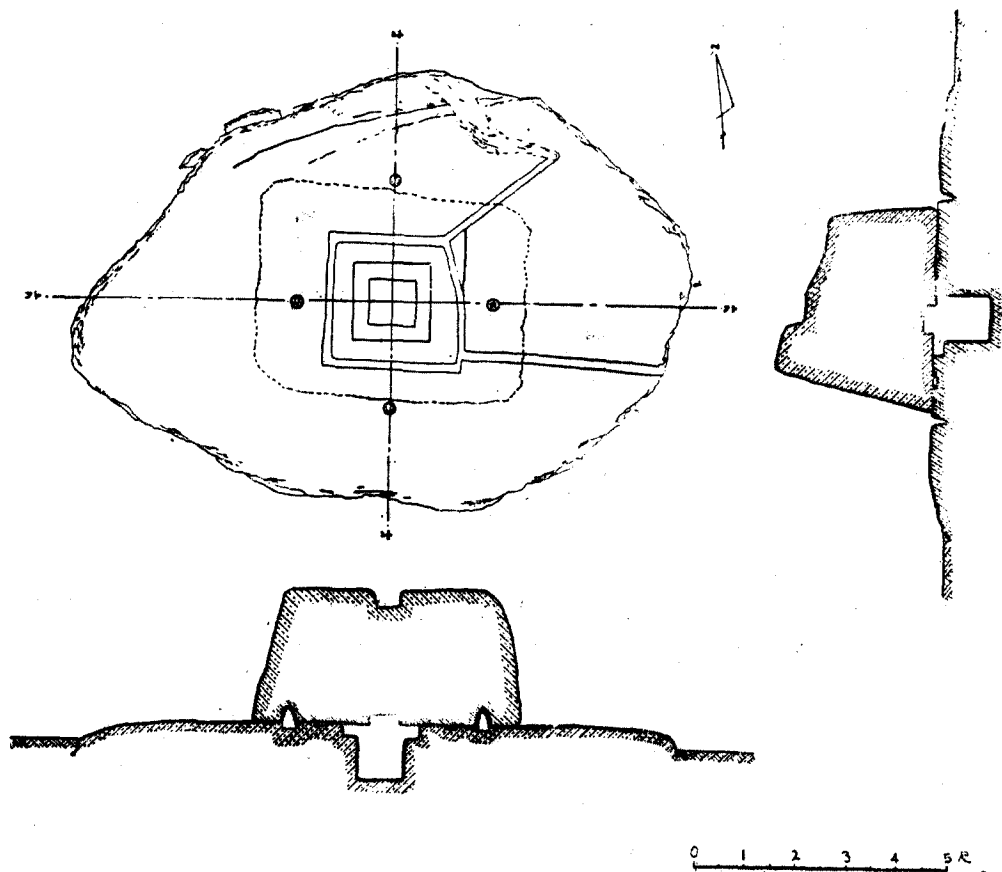
(5) 藤島亥治郎著 朝鮮建築史論 第1篇 第3章

大한 自然石 心礎위에는 尖頭形의 方形大石이 또한 塔址 中央에 孤立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 같은 指定古蹟에 대한 국가의 새로운 施策이 이루어지고 塔址의 全貌가 그런대로 出現되는 時期와 때를 같이 하여서 全國에는 古代塔婆 깊이 內藏된 舍利具를 盜掘하는 무리들이 橫行하고 있었으며 그중 경주에 居住하는 徒黨들은 경주의 古墳에서 비롯하여 특히 寺址에서 傳來하는 古代石塔과 塔址를 標的으로 삼았었다. 그리하여 1964年 12月 17일에 이르러 皇龍寺 木塔址의 心礎石 깊이 간직되어 있던 舍利具가 이들 不法者의 손에서 深夜에 掠奪되기에 이르렀으며 遺物은 그 직후 서울로 운반되어서 民間收藏者에 매도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千 數百年이 넘는 긴 歲月에 걸쳐 禮拜의 對象이 되었고 혹은 禁忌의 대상이었던 이 重要的 遺品이 마침내 다시금 出世함에 이르렀는데 그 經緯는 不法이며 따라서 그 遺物의 配置原狀이나 品目은 그들 손에 의하여 여지없이 攪亂되었던 것이다.

이같은 不幸한 剝奪에 필자는 서울에서 이 舍利具의 民間賣渡에 本意 아닌 관여를 하게 되었는데 바 그것은 買入者로부터 필자에게 鑑定의 의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필자는 生涯를 통하여 最大의 舍利具를 처음 相對하는 두려움과 그같은 緊急收拾策의 可否에 대한 躊躇가 交錯함을 아니 느낄 수 없었다. 그때 이같이 掠奪된 品目을 一覽하고 먼저 그 出處가 경주임을 알 수 있었고 혹시 皇龍寺가 아닐까 하는 의구가 앞서기도 하였었다. 이같은 不幸한 事態가 發生하기 앞서서 필자는 누구보다도 이 大塔址의 淨化 그위의 民家撤去를 위하여 上記委員會에서 發言한 바 있었으며 民家 철거후 事件發生에 앞서서도 不吉한 情報를 現地에서 들을 수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그後 2年이 지나서 1966年 9月 6日 佛國寺三層石塔에 대한 舍利具 盜取未遂事件이 일어나 그들 犯人一黨이 一網打盡된 직후에 있어서는 秦弘燮 崔淳雨 등 委員과 더불어 同對策委員會 委員으로서 佛國寺石塔 被害調査와 그 復元에 관여하는 동시에 慶州市內에 있어서는 그들의 犯行自白에 따라서 同年 10月 12日 皇龍寺木塔址 舍利孔의 現場調査에도 위의 二委員과 함께 參與하였던 것이다. 이때 佛國寺石塔 第二層屋蓋가 轉落되어 損傷되는 事故가 일어났고 동시에 그 순간에는 掠奪을 冒免한 同塔의 舍利具가 第2塔身 方孔안에 完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서 이때 필자가 現地에서 받은 그 衝擊과 安堵는 다 表現할 수가 없었다. 이와 동시에 이루어진 皇龍寺塔 心礎石에 대한 조사는 그후 그 內容이 公表⁽⁶⁾되기도 하였다.

皇龍寺塔 舍利具가 다시 民間에서 回收되어 司直當局의 조사를 받고 마침내 國立博物館에 保管된 것은 이같은 不幸한 舍利具盜取事件이 일어난지 滿2年이 넘어서의 일이었다. 이때 필자는 다시 그 回收에도 관여하여서 그 사이의 收藏者로 하여금 當局에 提出토록 勸告하였으며 그때 初見때와의 品目對照도 또한 擔當하였었다. 颱風一過라 할까 이같은 충격적인 事件이 가라앉고 이 舍利具는 마침내 國立博物館에 入庫됨에 이르러 이 事件은 그런대로 진정됨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들 一括遺物은 일찍이 한국의 塔婆에서 다시 그 類例를 볼 수 없었던 品目과 種別을

(6) 秦弘燮：皇龍寺塔址 舍利孔의 調査 美術資料 第11號 1966年 12月



圖面 1. 皇龍寺塔 心礎石

지니고 있어서 필자는 그에 대한 주목을 그 收拾의 當初부터 國庫歸屬에 이르기까지 게을리 할 수 없었다. 그리하여 1971年 9月 필자가 다시 國立博物館에 奉職하기에 이르러서는 무엇보다 먼저 이 遺物을 다시 相對할 수 있었으며 1972年의 新館으로의 移轉을 앞둔 奔忙속에서도 그 整理에 着手하는 기회를 얻고자 하였었다. 그러나 이같은 일은 짧은 時日에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歲月만 흘렀다. 그리하여 그중 가장 주목하여 왔던 金銅方形舍利函 三面内外에 雙鉤體로 陰刻된 塔誌의 解讀을 먼저 期하고자 하였다. 이들 各板에 文字가 있는 사실은 이미 이들을 처음 보았을 1964年 당시 알 수가 있었으나 金銅板 全面에 두껍게 녹이 덮여 있어서 오직 數三字의 存在만을 식별할 수가 있었을 따름이었다. 더우기 이들은 오랜 歲月 舍利孔 底面에서 浸水되어서 그 下端部가 侵蝕되고 脫落되고 있었으나 그 上面의 主文은 그대로 保存된 것을 알 수

가 있었다. 그리하여 이 皇龍寺塔 舍利具 중에서도 이 在銘 金銅板 3枚에 가장 큰 關心을 모으고 그 調査의 기회를 기다렸던 것이다. 과연 이같은 期待와 豫見은 어긋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1972년에는 原子力研究所의 金裕善博士에게 부탁하여 表面의 녹을 除去하고 判讀에 힘을 모아서 마침내 鍍金된 各板內外에 새겨진 銘文을 거의 判讀할 수가 있었다. 이 判讀을 위하여서는 數個月을 所要하였는 바 館務의 틈을 얻어서 一字 또 一字 解讀되면서 文脈이 이어나갈 때의 歡喜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을 대략 完了한 것은 1972년 가을이었는데 그 해는 銘文을 새긴지 꼭 1千1百年을 맞이 하는 해여서 그 옛날에 마련된 原文을 이같은 세월이 지난 후에 初對함이란 큰 多幸이었으며 또 얻기 어려운 學問 研究의 보람있는 作業이기도 하였다. 그것은 필자의 작은 勞苦에 대한 過分한 報答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金銅函의 前面에는 表裏에 雄健한 仁王立像四軀를 선각한 兩扉를 갖추어 方函을 이루었으며 다른 三面內外에는 銘文이 있는데 알 수 없는 것은 完形의 底板이 바닥에 없다는 사실이다. 犯法者들은 塔址에서 掠奪한 品目の 全部이며 따로 遊離시킨 것이 없다고는 하였으나 그 品目속에는 皇龍寺와 無緣의 在銘圓筒도 들어 있어서 犯人들의 口述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은 너무나 明白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銘文判讀이 끝나자 필자는 1972년 10월 檀大附設 東洋學研究所主催 第2回 東洋學學術講演會에서 그 概要를 發表하였다. 그리하여 그 席上에서 塔誌와 같이 장치되었던 舍利具의 내용에 대하여서는 그 장치의 방안과 함께 整理를 진행하겠다고 말한 바 있었다. 그 후 다시 1년이 지나는 사이 國立博物館은 景德宮內 新館으로 所藏品을 모두 移轉할 수 있었으며 1973년 4월에 이르러 韓國美術 2千年展이 開幕된 이후에 이르러 다시금 필자는 時間을 얻어서 塔誌 이외의 舍利具의 조사와 實測에 着手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撮影은 鄭永鎬教授에게 實測은 博物館의 林永周 高承台 兩氏에게 부탁하였다. 특히 實測作業은 酷暑를 무릅쓰고 夏季에서 初秋에 걸쳐서 完成할 수 있었다. 동시에 上記한 바와 같이 처음부터 교란된 品目들이기에 그들을 復元考察하기란 容易한 일은 아니었다. 이하 銘文과 舍利具를 나누어서 각기 考察을 진행하고자 한다.

Ⅲ. 塔銘—利柱本記(圖版 6—8)

上記한 바와 같이 銘文은 創建當初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新羅下代에 이르러 重創때에 새로 마련된 金銅方形箱子의 前面 兩扉를 除하고 三面板의 內外를 利用하여서 記刻된 것이다. 그런데 이들 三枚는 門扉와 더불어 정첩으로 上下에서 連結되어 있었다. 필자가 各板의 文脈을 따라 順位를 정하고 判讀된 文字를 옮기면 다음과 같은데 三枚가 內外에서 각기 連結되어 있으며 內面에는 主文이 外面에는 成典과 關聯道俗의 人名을 羅列한 사실을 알 수가 있다(字徑主文은 약 1cm 外面은 0.8cm이다).

第 1 板 內 面

皇龍寺刹柱本記侍讀右軍大監兼省公臣朴居勿奉教

詳夫皇龍寺九層塔者

善德大王代之所建也昔有善宗郎眞

骨貴人也少好殺生放鷹鷂雉雉出淚

而泣感此發心請出家入道法號慈藏

大王即位七年大唐貞觀十二年我國

仁平五年戊戌歲隨我使神通入於西

國 王之十二年癸卯歲欲歸本

國頂辭南山圓香禪師禪師謂曰吾以

觀心觀公之國皇龍寺建九層卒塔波

海東諸國渾汝國慈藏持語而還以

聞乃 命監君伊千龍樹大匠□濟□

非等率小匠二百人造斯塔焉

鎚字僧聰惠

第 2 板 內 面

其十四年歲次乙巳始構建四月□□

立刹柱明年乃畢功鐵盤已上高□□

已下高卅步三尺果合三韓以爲□□

君臣安樂至今賴之歷一百九十□□

暨于 文聖大王之代□□

既久向東北傾國家恐墜擬將改□□

致衆材三十餘年其未改構

今上即位十一年咸通辛卯歲恨其□

傾乃 命親弟上宰相伊千魏弘爲□

臣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其□節

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大統兼政法

和尚大德普緣康州輔重阿干堅其等

道俗以其年八月十二日始廢舊造新

鎚字臣小連全

第 3 板 內 面

其中更依無垢淨經置小石塔九十九

軀每軀納 舍利一枚陀羅尼四種經

一卷卷上安 舍利一具於鐵盤之上

明年七月九層畢功雖然利柱不動

上慮柱本 舍利如何令臣伊干承

旨取壬辰年十一月六日率群僚而往

專令舉柱觀之礎臼之中有金銀高座

於其上安 舍利琉璃瓶其爲物也不

可思儀唯無年月事由記○廿五日還

依舊置又加安 舍利一百枚法舍利

二種專 命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

改作之故以示萬劫表後迷矣

咸通十三年歲次壬辰十一月廿五日記

崇文臺郎兼春宮中事省臣姚克一奉 敕□

鐫字助博士臣連全

第 3 板 外 面

成典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臣金魏弘

上堂前兵部大監阿干臣金李臣

倉府卿一吉干臣金丹書

赤位大奈麻臣新金賢雄

青位奈麻臣新金平矜 奈麻臣金宗猷

奈麻臣金歆善 大舍臣金慎行

黃位大舍臣金兢會 大舍臣金勛幸

大舍臣金審卷 大舍臣金公立

道監典

第 2 板 外 面

前國統僧惠興

前大統政法和尚大德賢亮前大統政法和尚大德普緣

大統僧談裕 政法和尚僧神解

普門寺上座僧隱田 當寺上座僧允如

僧榮梵 僧良嵩 僧然訓 僧昕芳

僧溫融

維那僧勛筆 僧咸解 僧立宗 僧秀林

俗監典

涇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

執事侍郎阿干臣金八元

第 1 板 外 面

內省卿沙干臣金咸熙

臨關郡太守沙干臣金昱榮

松岳郡太守大奈麻臣金鑑

當寺大維那

僧香□ 僧□□ 僧元強 當寺都維那□□

感恩寺都維那僧芳另 僧連嵩

維那僧達摩 僧□□ 僧賢義 僧良秀

僧教日 僧珍嵩 僧又宗 僧孝清

僧允旼 僧□□ 僧嵩惠 僧善裕

僧□□ 僧□□ 僧聰惠 僧春□

□舍利臣忠賢

위의 같은 塔銘의 判讀을 통하여 이 「刹柱本記」가 行數 74 解讀된 字數 905字로서 기왕에 알려진 우리 上代의 塔記 중 가장 重要한 것임을 과연 國家의 大塔이었던 사실과 더불어 실감할 수가 있었다. 이같은 새로운 上代 金石遺文의 수습은 그것 하나만으로서도 皇龍寺塔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新羅의 史料로서 매우 重大한 意義를 지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아마도 上古의 塔誌로서 金石文 중 最貴의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木塔의 것으로서는 아마도 羅代唯一의 現存遺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같이 「刹柱本記」라고 題名이 그 第一行에 달린 皇龍寺 塔誌의 內容을 大別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主文의 第一板 初頭에는 上記한 이 記銘의 題目과 아마도 그 撰者로 생각되는 朴居勿의 官職이 보이고 있다. 이어서 먼저 皇龍寺塔의 始建의 事由가 보이고 있는데 그 建塔의 年代를 古新羅 善德大王代라 하였으며 다음에 高僧인 慈藏法師의 身分과 그의 出家의 動機와 法號 그리고 그가 入唐한 年代를 적고 있다. 그를 가르켜 眞骨貴人이라 하였고 「少好殺生」하여 「放鷹擊雉」함에 「雉出淚而泣」에 느낀 바 있어 出家入道하였다. 매우 간략한 文字이나 그가 入道한 事由를 적어 남음이 없다. 이같은 佛道에의 發心과 入道の 記事는 例컨대 佛國寺 石佛寺를 吐舍山에 創建한 신라 景德王代 金大城(金大正)의 捕熊說話⁽⁷⁾나 또는 神文王代에 있었던 신라 靈鷲寺⁽⁸⁾의 創建事由를 연상케 하는 바 이들은 모두 三國遺事에서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그의 入唐年代에 대하여 이 銘文에서는 大唐貞觀 12年 我國仁平5年(638)이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7) 三國遺事 卷5 大城孝2世父母條

(8) 三國遺事 卷3 塔像第4 靈鷲寺條

三國遺事 卷4 慈藏定律條⁽⁹⁾에는 「仁平三年丙申歲^{即貞觀十年也} 受勅. 與門人僧實等十餘輩 西入唐」이라 있어 塔誌와 2년의 差別을 보이고 있어 注目된다.

다음에는 그가 善德大王 12年 癸卯(643)에 이르러 歸國에 앞서 南山의 圓香禪師⁽¹⁰⁾를 찾아서 그로부터 建塔의 委囑을 받은 사실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또한 매우 중요하다. 이때 圓香이 말한 것은 皇龍寺에 9層의 窣堵波(STUPA)를 세우면 海東諸國이 汝國에 渾降하리라고 하였다. 이같은 그의 말은 「以觀心 觀公之國」에 따른 것인데 이것 또한 중요한 文字로서 당시의 國際情勢를 洞察한 表現이라 하겠으며 「觀心」이라 한 佛教의 文字는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海東諸國이 渾降하리라고 한 것은 곧 三國遺事 卷3 皇龍寺 9層塔條에 기록된 다음의 기사를 연상케 하여준다.

又海東名賢安弘撰東都成立記云. 新羅第二十七代. 女王爲主. 雖有道無威. 九韓侵勞. 若龍宮南 皇龍寺建九層塔. 則隣國之災可鎮⁽¹¹⁾

그리하여 慈藏은 이같은 圓香禪師의 말을 지니고 돌아와 國王에게 아뢰에 國王은 伊干 龍樹에게 命하여 監君을 삼고 大匠 □濟□非 등이 小匠 2百人을 거느리고 이 탑을 建塔하였다고 하였다. 伊干 龍樹는 말할 것도 없이 龍春으로서 武烈大王的 父이다. 監君이라 한 것은 總監督을 담당한 棟梁을 가리키며 大匠이하의 伏字 두개는 혹시 百과 阿를 넣어서 「百濟阿非」가 아닐까 한다. 그 까닭은 三國遺事 卷3 皇龍寺塔條에 이같은 事由를 적어서 「匠名 阿非知. 受命而來. 經營木石 伊干龍春 一作龍樹 幹蠱 率小匠二百人」이라 한 것과 一致되고 있기 때문이다. 阿非知가 百濟의 大匠으로서 「群臣曰請工匠於百濟. 然後方可. 乃以寶帛請於百濟」란 사실이나 伊干龍春이 幹蠱한 사실 小匠 2百人이라는 數字의 정확한 一致를 들 수 있어서 遺事가 전하여 준 「寺中記」 또는 「刹柱記」라 한 것이 바로 이 塔誌 등으로서 遺事의 撰述當時까지 이같은 古代記錄의 傳來事實을 示唆하고 있다.

다음 第2板에 보이는 主文에 있어서는 三國史記 卷5 善德王 14年條에 「三月創皇龍寺塔. 從慈藏之請也」라 있는 것과 一致하여서(但 銘文에는 4月) 始建當初의 刹柱建立에서 畢功의 年代를 적었다. 그리하여 完工된 東洋大塔의 높이를 적었는데 「鐵盤已上高口口 已下高卅步三尺」이라 한 것은 또한 三國遺事 九層塔條에서 「刹柱記云 鐵盤已上高四十二尺 已下一百八十三尺」이라고 明記한 것과 一致하고 있으니 一步六尺으로 計算할 때에 위의 伏字 2個는 「七步」로 읽어야 할 것인 바 이 伏字 또한 銅板末端的의 缺失部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遺事가 「刹柱記云」이라고

(9) 三國遺事 卷3 皇龍寺九層塔條에도 「貞觀十年 丙申. 慈藏法師西學」이라 하였다.

(10) 三國遺事 卷3 皇龍寺九層塔條에는 이에 대하여 附註 「寺中記云. 於終南山圓香禪師處. 受建塔因由」라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그러나 遺事는 이같은 짧은 寺中記의 引用以外에 建塔에 대하여 中國 大和池邊에서 만난 神人과의 問答을 기록하고 있으며 「歸本國成九層塔於寺中. 隣國降伏. 九韓來貢 王祚永安矣」云云이라 하였다.

(11) 三國遺事 卷3 皇龍寺九層塔條에서는 安弘撰 東都成立記를 引用하여 皇龍寺에 九層塔을 세우면 隣國之災可鎮이라 하고 9國을 들고 있으니 第1層 日本 第2層 中華 第3層 吳越 第4層 托羅 第5層 鷹遊 第6層 鞋鞮 第7層 丹國 第8層 女狄 第9層 微貊이라 하였다.

한 刹柱記야말로 이 塔誌인 「刹柱本記」를 指稱하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다. 塔의 높이를 기록 하되 鐵盤을 標準으로 삼는 사실은 또한 매우 注目할 만하다. 鐵盤이란 文字는 그대로 鐵製의 方形盤을 가리키는 바 이 鐵盤은 塔身의 頂上部에 놓이어서 塔身과 相輪의 上下 兩部를 區分하는 것이다. 이 鐵盤中央에는 圓孔이 뚫여 있어서 그것을 貫通하여 刹竿이 세워지기도 한다. 이 같은 鐵盤의 遺例로서는 羅代의 것이 오늘 慶北 漆谷郡 東明面 松林寺 5層磚塔에 그 遺形이 남아 있고 近世의 一例가 忠北 報恩 俗離山 法住寺 5層木塔(殿相殿)에 남아 있다. 이들 兩例⁽¹²⁾는 모두 解放後 解體修理되었는데 塔頂에서 降下되어 필자는 그 實物을 모두 조사할 수가 있었다. 이같은 塔婆 全高의 表記方法이나 單位 步尺의 記錄은 또한 重要한데 三國遺事는 一步六尺으로 換算하였던 것이다. 이어서 大塔이 竣工됨에 「果合三韓爲□□ 君臣安樂至今賴之」라 한 것은 이 建塔의 發願이 三國統一의 胎動을 배경으로 신라의 舉國의인 念願을 그대로 反映하고 具顯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며 君臣의 歡喜와 信賴를 또한 오늘의 우리 現實에서 넉넉히 짐작할 수가 있다고 하겠다. 이어서 그후 1百90□□을 지나 文聖大王 때(839—856)에 이르러 이 大塔이 東北으로 傾斜됨에 나라에서 恐墜하고 衆材하기 다시 30餘年을 지나도 아직 改構치 못하였다. 그리하여 今上(景文大王) 即位 11年 咸通 辛卯(871)에 이르러 마침내 임금의 親弟인 上宰相 伊千 魏弘에게 命하여 寺主 惠興 등 道俗의 힘을 모아 그해 8月 12日에 「廢舊造新」함에 이르렀다.

끝으로 第3板內面에 새겨진 主文은 前板에 이어서 景文王代 重修때의 舍利藏置의 品目에서 비롯하고 있다. 그리하여 無垢淨經에 따라서 小石塔 99軀를 安置하였으며 그 小塔마다 舍利一枚와 陀羅尼四種을 넣었으며 또 經1卷을 넣어서 그 위에 舍利一具를 安置하였으며 그 장소로서 「鐵盤之上」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와같이 無垢淨經에 따라서 塔內에 99塔을 奉安하는 遺例를 필자는 여러 차례 우리 나라 신라의 塔에서 조사할 수 있었으며 塔誌에서도 그같은 記文을 볼 수가 있었다. 신라 統初인 700年頃에 建立된 慶州 皇福寺 3層石塔의 金銅 舍利函銘에는 藏置品目の 하나로서 「無垢淨光大陀羅尼經卷一」을 들었다. 또 1966年の 解體 당시 佛國寺 3層石塔 相輪部 露盤위와 2層의 舍利孔안에서 小木塔 11개가 收拾되었고 世界最古의 印刷物인 無垢陀羅尼經1卷이 발견되었다. 기타 羅代의 石塔으로서 奉化 西洞里 東3層石塔(拙稿「美術資料」第7號 1963年刊) 海印寺一柱門 앞 3層石塔 또는 江原道 襄陽郡 西面 禪林院 3層石塔(秦弘燮: 禪林院址3層石塔發見小塔「美術資料」9號) 등에서 발견된 多數의 小塔 기타 박물관이나 民間에 收藏된 遺品이 적지 않다. 이같이 新羅統一期 建塔의 所依經典은 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있으며 그에 따라 그 經文에 보이는 바와 같이 99 또는 77의 小塔을 장치하였는데 土木石 3種의 小塔이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들 小塔의 밑바닥에는 圓孔을 뚫어 墨書의 眞言을 納置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같이

(12) 金載元: 松林寺磚塔 震檀學報 第29, 30合併號 1966年
崔淳雨: 法住寺捌相殿의 舍利裝置 考古美術 9卷 11號

은 無垢淨經을 따르는 石塔을 가리켜 1972년에 忠南 保寧 聖住寺址에서 수습된 金立之撰 聖住寺 碑片(부여 박물관 保管)에는「三層無垢淨石塔」이라 보이고 있다. 景文王代에 이르러 皇龍大塔을 重修할 때 小石塔 99軀를 安置하고 每塔마다 舍利와 陀羅尼 4種(日本 法隆寺의 百萬陀羅尼木塔은 이같은 4種 陀羅尼를 藏置하였다)을 넣은 까닭을 넉넉히 이해할 수 있다. 다음에 鐵盤은 위에서 說明한 바와 같거니와 그 위에는 伏鉢이 놓이니 舍利一式은 塔頂 相輪⁽¹³⁾ 밑에 두었다고 추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같이 木塔의 舍利具를 塔頂에 둔 事例는 우리의 古記錄에서 처음 보는 것인데 이것은 後述하려는 바와 같이 心礎石에는 柱本舍利가 안치되어 왔었던 사실이 그 이유의 하나였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明年(景文王 12年 壬辰) 7월에 畢功을 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記事에 이어서 다시 매우 중요한 기록이 보이고 있으니 그것은 이때 木塔中心을 貫通하고 있는 刹柱는 不動이었으므로 柱本舍利的 如何를 念慮하여서 그해 11月 6일에 國王이 群僚를 이끌고 현장에 이르러 刹柱를 들어 보았다는 것이다. 그리하였더니 礎石(刹柱 바로 밑인 心礎中央에 마련된 方形的 舍利孔을 가리킨다)속에「金銀高座」가 있으며 그 위에「舍利琉璃瓶」이 안치되어 있었는데 그 爲物이 不可思議나 다만 年月과 事由記를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아마도 이같은 高座위의 舍利瓶은 혹은 始建當初의 것으로 추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同月 25日 依舊還置하고 다시 그곳에는 舍利 1百枚와 法舍利 2種을 加安하였으며 아울러 事由를 記題하고 始建之源과 改作之故를 略記하여「示萬劫 表後迷」케 하였다. 이같은 萬劫과 後迷에 表示코자 마련한 바로 그것이 이같은 3枚의 銅板塔誌 바로 그것에 該當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이 大塔이 創建에서 비롯하여 重修에 이르는 長文의 記錄이 國王의 命으로 이루어진 까닭을 알 수도 있다. 그것은 國家安寧에 直結되어 온 大塔의 改修에 있어서 古人이 보여준 매우 慎重한 配慮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末尾에는「咸通13年 壬辰11月25日記」라 보이고 姚克一奉教□□라 하였는데 이것은 上記한 第一板 初行에서 말한 朴居勿과 더불어 이 刹柱本記의 撰者와 書者를 首尾에서 각기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 撰書兩者인 朴居勿 姚克一의 컴비네손은 當代의 文章이요 書藝의 名人의 結合으로서 三國史記 卷28 百濟本紀 六에서도「朴居勿撰 姚克一書 三郎寺碑」라 보이고 있으니 이 塔誌의 姓名과 正確한 一致를 보이고 있는 사실 또한 참으로 奇緣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千百年이 경과한 오늘 그들이 애써 마련한 塔誌를 다시금 눈앞에 볼 수 있는 사실 또한 그러하다.

이와 같은 主文 3枚 이외에 各面의 裏面에는 이 景文大王代 大塔重修에 關與하였던 道俗의 人名이 그들의 官職名과 더불어 같은 方式으로 記刻되어 있는데 다만 그 人名板의 順位는 塔誌 主文과 正反對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內外가 모두 向右부터 비롯하였으나 表裏의 관계이기에 後面記刻은 第3板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 첫머리에는「成典」이라 하였으니 아직까지

(13) 慶北 漆谷郡 東明面에 있는 松林五層塔에서는 塔身속에서 石函속에 장치된 創建당시의 舍利具 이외에 頂上인 金銅相輪의 伏鉢안에서 象嵌靑瓷圓盒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의 改修를 당하여 加安한 것으로서 비록 고려의 道例이나 方形的 鐵盤위에 있었던 사실과 더불어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國立博物館 소장(註 12)

史書에 아니 보이던 신라 最大寺院인 皇龍寺成典⁽¹⁴⁾을 이곳에서 初對하게 된 것은 또한 이 塔誌가 지니는 重要性의 하나라고 하겠다. 일찌기 故 李弘植博士는 그의 「新羅僧官制와 佛教政策의 諸問題」(遺著인 「韓國古代史의 研究」所收 1971年刊)에서 「여기에 皇龍寺成典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皇龍寺는 일본의 東大寺格으로도 생각되는데 미심한 일이다」라고 한 바도 있었는데 이곳에서 故人이 다시 追慕되기도 하였다. 그 第1行에서는 「監脩成塔事守兵部令平章事伊干金魏弘」이라 하였는데 신라史에서 알려진 그가 이미 主文에서 본 바와 같이 成典의 첫머리에 있어서 이 巨役을 主管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으로는 上堂前兵部大監의 阿干 金李臣과 倉府卿一吉干的 金丹書가 있으며 그 이하 大奈麻 1人 奈麻 3人 大舍5人이 있어 合計 11人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大奈麻以下 奈麻 大舍의 머리에는 각기 赤位 靑位와 黃位와 같은 色位⁽¹⁵⁾를 冠하고 있는 것은 또한 신라의 官階로서 그 내용이 注目할만하다. 그리고 11人中에는 金氏 9名을 제외하고 新金氏⁽¹⁶⁾가 2人 포함되어 있어서 처음 보는 이 成典에서 특히 注目할만하다.

第2板 外面에는 前板 末行에 보이는 「道監典」이 그 順位를 따라 列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俗監典」이 또한 계속되고 있다. 道監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大塔佛事に 關係한 僧侶를 가리키며 俗監典은 世俗人을 두고 말하였을 것이다. 前者 첫머리에 前國統僧惠興이 보이고 있는데 그는 이미 主文 第2板에서 「寺主惠興爲聞僧及脩監典」이라고 보이고 있는 寺主와 同一人임을 알 수 있다. 그는 일찌기 國統을 지냈으며 皇龍寺 重修에는 寺主로서 이 巨役을 主管하였던 것이다. 그에 이어서는 前大統政法和尚 大德인 賢亮과 普緣 2人이 보이는데 이들 兩人은 또한 惠興과 같이 이미 第2板主文에서도 記名이 보이는 僧侶 3人중에 포함되어 있다. 이하 大統僧談裕以下 12名이 記錄되어 있는 바 그 중에는 普門寺上座가 皇龍寺上座와 나란히 보이고 있다(上記한 故 李弘植先生 論文 參照).

다음에 俗監典으로서는 5名이 記名되어 있는데 그 첫머리에는 溟江鎮都護重阿干臣金堅其가 보인다. 그는 또한 上記한 主文 第2板에서 「康州輔重阿干堅其」라고 記錄된 人物과 同一人임을 알겠다. 그리하여 國王의 「親弟 上宰相伊干魏弘」(主文第二板)과 僧侶로서 惠興 賢亮 普緣 그리고 重阿干 金堅其의 以上 5人은 그들의 이름이 主文과 道俗人名錄에 모두 重複되어서 內外板에 두 차례 보이고 있음을 알겠다. 이같은 사실은 동시에 그들 道俗 5人이 國王의 命을 받들어 이 塔役을 主動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바 다만 主文과 背面의 人名錄에서 官職이나 僧階에 差別을 보이고 있는 사실은 年差를 따르는 變動인지 또한 주목되었다. 그리고 俗監典 5人中에는 상기한 重阿干과 阿干이 각 1人 沙干이 2人 大奈麻가 1人인데 모두 金氏이며 그들은 執事侍郎과 內

(14) 신라의 成典을 보이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三國史記 卷38 職官上에 四天王寺 奉聖寺 感恩寺 華德寺 奉恩寺 靈廟寺 永興寺 등의 成典이 기록되어 있을 뿐이다.

(15) 三國史記 卷38 職官上에 보이는 各寺 成典에 赤位 靑位와 그 人數가 보이나 黃位는 아니 보인다. 皇龍寺成典의 初見과 함께 注目된다.

(16) 新金氏에 대하여서는 昌原 鳳林寺 眞鏡大師碑(今在景福宮庭園)에 「大師俗姓新金氏其先任那王族」이라고 보인다(朝鮮金石總覽 上卷).

省卿 그리고 臨關郡과 松岳郡의 太守와 같은 官職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5人中의 大奈麻 金鑑은 江原道 寧越의 興寧寺 證曉大師寶印塔碑의 陰記에 보이는 「金鑑蘇判」과 同一人으로 보인다. (拙編「金石遺文」第3冊 1972年 韓國美術史學會刊 參照)

이상 成典에 이어서는 塔役을 위한 道俗의 監典이 있었으며 第1板 外面인 이 名單末尾에 이르러서는 「當寺大維那」와 「維那」 밑에 각기 6名과 16名이 나열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感恩寺都維那가 보이고 있다. 그리고 第1板外面의 最末尾에는 人名보다 작은 글자로서 「口舍利臣忠賢」이라고 陰刻된 一行이 있는데 이 終行은 아마도 이 塔誌가 完成된 후 添加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하여 3板에 걸쳐서 總計 56名의 人名이 이 誌塔의 背面을 이용하며 기록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같은 사실에서도 이 황룡사탑의 重修가 新羅의 朝廷과 佛門에서의 一大事였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므로 主文中에서 이미 짐작한 바와도 같이 景文大王代의 着工에 앞서서 文聖大王代 이래 塔이 東北으로 傾斜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다시 數十年의 歲月을 기다려만 하였던 事由도 짐작할 수가 있겠다. 그같은 大塔役事가 비단 一個 巨刹의 所管事가 아니고 國家와 國民 모두의 關心事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三國史記가 이같은 사실을 反映하여서 卷 11 景文王本紀⁽¹⁷⁾에 3次에 걸쳐서 震塔 改造 畢成의 記事를 실고 있는 까닭도 아울러 理解할 수가 있다. 이 景文王代의 改造는 羅代에서의 最終의 役事가 되었는데 과연 國力을 기울이고 人力을 動員하여 그 일에 最善을 다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이같은 事由를 詳記한 塔誌의 이번의 收拾을 역시 萬幸이라고 하겠다. 비록 그 收拾의 경위에 있어서 큰 유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마침내 永久保存케 된 사실은 특히 이 金銅塔誌 3枚를 가리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가장 重要的 塔誌에 대한 說明을 끝내기에 앞서서 그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만들어진 경주 昌林寺石塔 發見의 造塔記銘銅板 一枚를 들어 比較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 昌林寺石塔 金銅塔誌板⁽¹⁸⁾(크기 縱 25cm 橫 30cm)은 오늘 傳來하지는 못하였고 오직 阮堂 金正喜선생의 配慮와 그의 識語⁽¹⁹⁾에 의하여 그 內容이 오늘에 알려지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것과 皇龍寺塔誌 사이에는 서로 크기와 年代의 接近 字行數 그리고 雙鉤式의 文字記刻法 또 銅板前後面에 主文과 關係人名을 각기 區分한 點에 이르기까지 서로 닮고 있는 사실이다. 이것은 塔自體

(17) 三國史記 卷11 景文王本紀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8年(戊子)夏6月. 震皇龍寺塔

11年(辛卯)春正月. 王命有司改造皇龍寺塔

12年(癸巳)秋9月 皇龍寺塔成. 九層高 22丈

三國遺事 卷3 皇龍寺九層塔條에는

「48景文王代戊子6月. 第二譯羅. 同代第三重修」라 하였다.

(18) 末松保和: 昌林寺無垢淨塔記(「新羅史의 諸問題」1954年 刊所收

慶州南山의 佛蹟 15頁 第7圖 昌林寺無垢淨塔願記金正喜臨寫

拙編: 續金石遺文 塔銘

(19) 金正喜先生의 識語 속에 다음과 같이 보이고 있다.

甲申春. 石工破慶州昌林寺塔. 得藏陀羅尼經一軸. 盛銅圓套. 又有銅板一. 記造塔事實. 板背並記造塔官人姓名. 又有金塗開通元寶錢. 青黃燧珠. 又鏡片銅跌爲鑄銅者所壞. 軸面黃絹金畫經圖

에는 木石 材料의 差別이 있기는 하나 當代 記銘方式을 보이는 좋은 例를 삼을 수가 있을 것이다. 이 昌林寺塔의 兩面刻字된 造塔記銘銅板의 發見은 甲申春(朝鮮 純祖 24年 1824年)에 해당되는데 1行 14—15字이며 主文인 前面은 14行으로서 皇龍寺塔誌와 一致되고 있다. 昌林寺塔誌가 新羅 文聖王17年(唐大中 9年 855年)이므로 皇龍寺塔誌(景文王 12年 咸通 13年 872年)와는 불과 17年의 年差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두 文聖 景文 兩王의 發願임에서 이같은 同一方式의 金銅塔誌를 한층 이해할 수가 있다. 昌林寺塔誌 또한 金立之같은 一代의 文章의 손에 의하였음은 國王의 願成으로서 皇龍寺塔誌와 더불어 이해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拙稿: 金立之撰 新羅 聖住寺碑「文化財」第4號 1969年 9月刊 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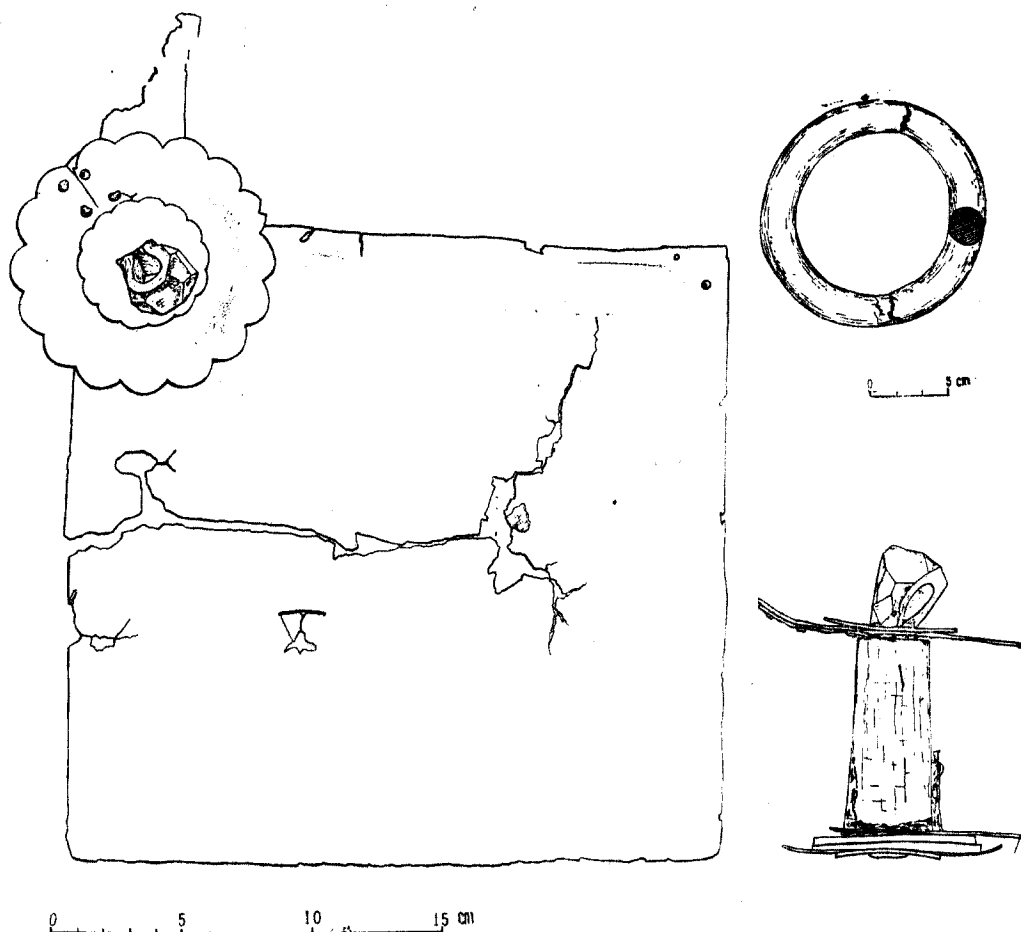
IV. 舍 利 具

다음에 塔誌와 同時에 收拾되었다고 전하는 一括遺物을 論議하여야겠다. 이들 또한 塔誌板과 함께 民間所藏에서 떠나 지금 國立博物館에 있는 바 우선 이들에 대한 實測圖面 등이 1973年 9월에 들어서야 完了되었으므로 이곳에서 대략의 分類를 따라 說明하여 보겠다. 다만 이들 舍利具로 추정되는 金銀銅類의 造形物들은 그 大小를 莫論하고 모두 收拾 당시 이미 竊奪되었으며 配置方案의 原狀을 추정케 하는 知見도 거의 남은 것이 없다. 또 이들이 深夜에 盜掘된 것이며 九黃里 部落에 隣接된 塔址에서 짧은 時間에 掠奪된 것이기에 그들이 전하는 知見이 없을 뿐 아니라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掠奪後 2年 1966년에 이르러 그 舍利孔이 처음 調査되어서 破碎된 石蓋 밑의 方孔속에서 殘片들이 收拾되었다고는 하나 그것으로서 原形復元에 도움 된 것이 많다고 할 수는 없다. 그중에는 他塔의 것으로 추정되는 것조차 混在함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이들에 관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그들 掠奪者로부터 收拾된 그들을 區分하여서 간단하게 이곳에 소개할 수 밖에는 다시 別道理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一括遺物중에는 重要品目이 들어 있으며, 비록 破片 또는 部材라 하더라도 또한 價値가 높은 것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매우 多幸이라 하겠다. 以下 그들을 三大 分類하여서 附番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塔銘에 보이는 記文이나 舍利孔의 殘餘品과도 對照시키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金銅外函(圖版12—14, 圖面2—3)

心礎中央에 마련된 方孔은 2段을 이루고 舍利具는 그 아래의 一邊 30cm 高 27.5cm의 거의 正方孔에 安置되었다. 그리고 이같은 舍利孔 上方에는 1段의 턱(高 8cm 幅 9cm)이 마련되었는데 이것은 舍利孔을 덮었던 1段의 正方蓋石(一邊 48cm 厚 7cm)을 그 위에 얹기 위한 造形이다. 이같은 2段方孔은 일찌기 扶餘邑 舊衙里에서 發見된 百濟의 心礎石⁽²⁰⁾과 그 두께가 같은 樣

(20) 이 心礎石은 史記에 보이는 天王寺木塔의 그것으로 추정되었는데 日帝末에 발견되어 그 方形蓋와 같이 현재 扶餘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다. 작으나 귀중한 資料라고 할 수 있겠다.



圖面 2. 舍利外函 蓋板과 고리

式이며 新羅의 것으로서는 統一直後에 文武大王께서 創立한 四天王寺 東西木塔 등에서 또한 心礎石의 同例를 볼 수가 있다. 다만 이같은 濟羅의 舍利孔은 方形礎石中央에 마련되었으되 皇龍寺의 것은 巨大한 自然盤石을 利用하고 있는 사실이 다르다고 하겠다. 이같은 크기의 皇龍寺塔의 二段方孔안에는 方形 金銅箱子가 들어 있었다. 大小數十의 4面壁의 破片이 收拾되었는데 그 底板⁽²¹⁾의 存在에 대하여서도 1966月의 舍利孔조사 때에 그 底面에서 破片이 確認되고 있다. 多幸히 4枚壁板 중에서도 北壁에 해당되는 一枚는 大小片으로 破損되었으나 그 原形(크기 橫 29.8cm 現縱 24.5cm)이 거의 復元된 것은 多幸이었다. 이 北板은 調査時에 收拾된 것인 바 他面의 것

(21) 秦弘燮: 皇龍寺塔舍利孔의 調査(『美術資料』 11號 1966年刊 국립박물관)



圖面 3. 舍利外函 壁板(北)의 神將立像(其一)

은 모두 破片이 되어서 또 하나의 一面을 除外하고는 完全한 復元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北板을 넣어서 모두 下端部가 缺落된 것은 腐蝕에 의한 것이며 이들 計四枚는 4隅에서 서로 連結되고 있었다. 이들 各板은 현재 모두 얇으며 全面에는 각기 兩軀의 神將立像이 線刻되어 있는데 모두 足部는 아니 보이나 身高 약 23cm로서 武器를 잡았으며 天衣는 매우 古式을 보이고 腹部에는 U字形으로 重段을 이루고 있다. 이같은 神將立像 計8軀를 刻한 金銅板은 첫째 神將 그 自體의 樣式이나 線刻手法와 方形箱子の 結構方式 등에서 그 年代가 매우 高古함을 알 수 있겠다. 그리하여 그 製作年代를 皇龍寺塔 創建과 同代인 古新羅 善德王代⁽²²⁾의 것으로 推定하고

(22) 芬皇寺는 신라 善德王 3年(634)에 完成되었는데 그 舍利石函이 舍利具와 더불어 日帝初에 발견되어 현재 경주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다. 그것은 第2層에 있었으므로 保存이 모두 良好하며 또 改修때의 발견이었다. 이에 비하면 同女王 14年 乙巳(645)에 立刹柱한 당시의 皇龍寺 木塔의 柱本舍利는 서로 불과 10餘年の 年差이므로 비록 藏體場所의 上下와 塔材의 石木의 差別이 있었다 하더라도 서로 比較할 만하다. 朝鮮古蹟圖譜 第3冊 참조.



舍利外函 壁板의 神將立像 (其二)

자 한다. 이것은 上記한 바 銘文을 兩面刻字하여 方形으로 連結한 金銅箱子에 比할 때보다 크고 소박하며 더욱 오랜 것으로 推定된다. 이곳 神將立像은 위와 같은 필자의 年代推定을 따른 三國末 7世紀前半의 作品으로서 매우 귀중한 것이며 기왕에 알려진 경주 石室古墳發見 門扉의 神像石彫⁽²³⁾와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에 이같은 舍利孔안의 方形箱子를 덮기 위한 뚜껑으로서는 中央에 金銅圓環이 있고 그곳에 連結된 4枚等大의 方板으로서 構成된 얇은 銅板이 있어서 이것이 상기한 바 舍利孔 上段턱 위에까지 가득히 덮여 있었다. 그리고 그 밑의 上層턱위에는 다시 梯形을 이루는 四枚의 金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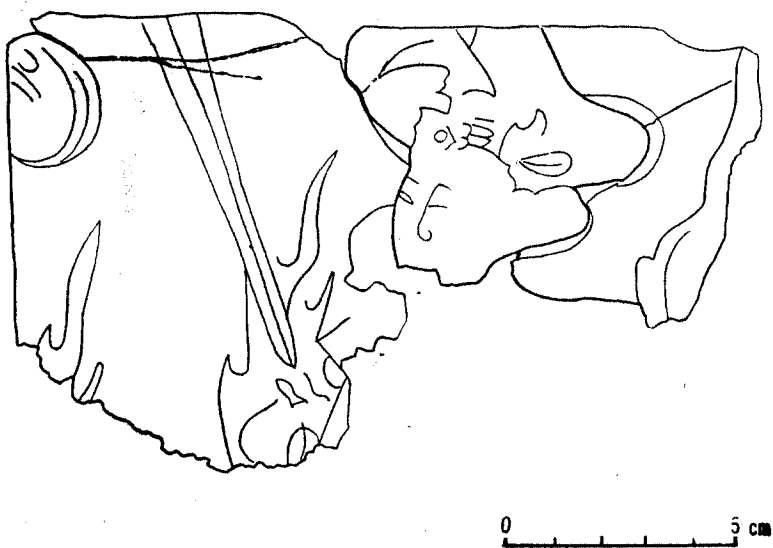
(23) 長方形 一石의 앞뒤에 立像이 양각되어 있다(國立博物館 소장). 他一枚는 現在 日本으로 搬出된 것으로 추정될 뿐 所在不明이다.



舍利外函 壁板의 神將立像 (其三)

板이 서로 四隅에서 連結되어 正方形을 이루는 銅板方帶가 놓이어서 이것은 다시 그 밑의 舍利外函의 面板과 壁面上緣에서 서로 겹치게 되었을 뿐 連結은 아니되었다. 그리고 상기한 外函上面의 큰 두껍 中央에는 높이 약 7cm의 鐵筒⁽²⁴⁾이 솟았는데 이 鐵筒의 바로 밑에는 2枚의 大小圓板을 그리고 그 頂上에는 金銅蓮花紋 圓板 大小2枚를 각각 上下의 받침판으로 삼았다. 이갈

(24) 遺品 중에 鐵片 合計 6片이 있었으며 그 중 最長의 것이 길이 7cm 幅 3.5cm인데 이들은 石蓋를 貫通하였던 表蓋中央의 鐵筒에서 脫落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舍利外函 壁板斗 神將立像 (其四)

은 鐵筒上端에는 面을 낸 큰 고리못이 끼어 있었고 다시 이고리 못에는 두개로 分斷된 도금된 고리(直徑 8.8cm 環徑 1.3cm)가 한개 끼어 있었다. 그런데 이 鐵筒은 現在의 높이 약 7.5cm 直徑 약 3.5cm로서 舍利石蓋의 中央에 뚫은 구멍(직경 5—5.5cm)을 貫通하고 있었다고 추정되었다. 不法者에 의하여 舍利具 약탈에 앞서서 破碎되기는 하였으나 이 方形石蓋는 그 中央에 장치된 고리만을 들어 올림으로써 引上될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바 深夜의 犯行이라 먼저 石蓋부터 破碎⁽²⁵⁾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이 金銅外函은 우리 나라 最大 最古의 것으로서 心礎石舍利孔과 크기가 거의 같은데 內面에 鍍金하였으며 各面 2軀의 神將立像이나 各板의 結構方式 또한 매우 簡略하다. 이 金銅函에는 底板이 있었다는 사실이 上記한 바와 같이 石面에 밀착된 작은 破片의 存在에서 밝혀졌으나 紋樣같은 것은 없었으며 側板과의 連結方式도 모두 缺失되어서 또한 자세히 알 수가 없었다. 그리고 2段石孔을 덮기 위하여 石蓋를 얹은 上段의 턱에도 따로 또한 長方板을 놓았다는 사실과 다시 이들 金銅外函을 덮기 위하여 方石一枚 뿐 아니라 그 밑에 넓은 4枚構成의 銅板 뚜껑을 만들고 그 中央에서 긴 鐵筒을 貫通시키고 그것이 石蓋의 두께를 뚫고 그 表面에 이르러 圓環으로 마감한 用意의 周到함을 세삼 느끼게 한다. 이같은 方式은 비록 규모는 작으나 上記한 바 扶餘 舊衙里 72번지에서 1945年 6월에 出土된 傳 天王寺 塔址의 心礎方石과 그 中央 2段孔을 덮었던 작은 石製方蓋의 樣式을 다시금 연상케 한다. 이 百濟木塔의 心礎石은 오늘 扶餘博物館에 陳列되어 있는데 方形(1邊 99×97cm 두께 40cm)이며 그 중앙에 깊이 12.9cm 上徑 17cm 內徑 12cm의 2段方孔이 있고 이 方孔을 덮어서 石蓋(1邊 16.8cm 厚 2.5cm)가 있어 收拾되었다. 이것은 7世紀 前半의 것으로 추정되어서 皇龍寺와 거의 同代임이 주목되는 바 이같은 方式은 現存하는 報恩 法住寺 5層木塔에서도 調査되었다. 百濟工人이 이 皇龍寺 大塔의 創立을 위하여 초빙된 사실은 遺事나 이번의 塔誌에서도 추정되고 있거니와 心礎의 舍利孔 方式에서 古代兩國의 것이 서로 酷似함은 또한 注目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方式의 近似보다도 破片에서 復元된 이 外函의 樣式과 특히 方函各面의 神將像은 일찌기 우리 나라 塔舍利具에서 檢出된 가장 귀중한 三國時代의 造形으로서 4枚中 2枚가 거의 復元될 수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매우 多幸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神將이 보이는 各部의 樣式이 古式을 지니고 있어 上記한바 慶州 出土의 古墳石扉表裏의 立像(長四尺 4寸 國立博物館 소장 「李王家博物館寫眞帖」下卷 參照) 또는 日本 法隆寺 등 4天王木像의 遺例 등과 比較될 수가 있을 것이다. 두꺼운 녹이 全面을 덮고 있어 그 模寫는 결코 容易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各像의 足部를 除外하고 그 全貌를 거의 模寫할 수 있었던 것은 이같은 神將의 연구에서 뿐 아니라 이들을 통하여 7世紀 前半의 가장 오랜 畫蹟을 짐작케 함이 있어 한층 貴重함을 깨닫겠다.

(25) 塔址에 隣接된 部落民家에서는 이 石蓋破碎의 소리를 들었을 것이 불림이 없는데 그대로 傍觀하였다고 생각된다. 犯行者들은 寺址의 이웃 排盤 部落의 居住者들이었다.



圖面 4. 舍利內函 門扉 (表)

2. 金銅內函(銘板橫 23.5 縱 22.5cm)(圖版 8—11, 圖面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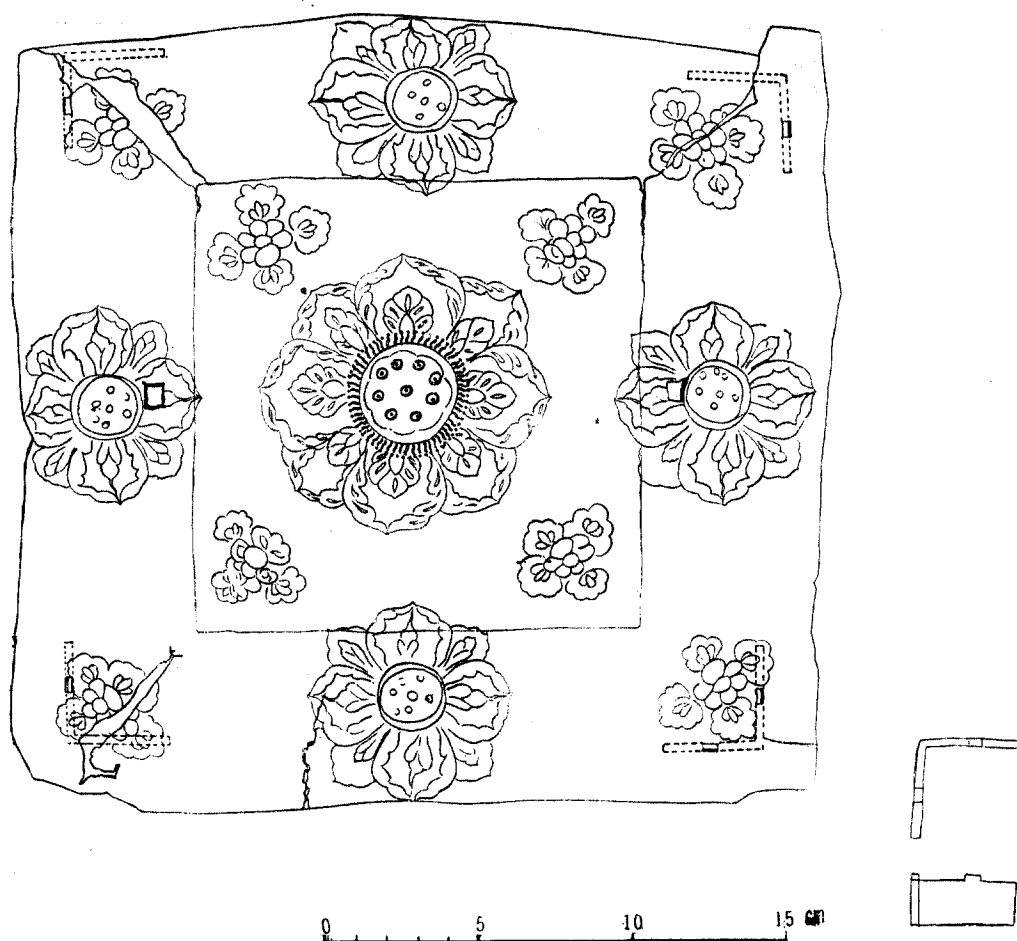
이에 대하여서는 위에서 塔銘을 表裏兩面に 記刻한 金銅板 3枚를 說明할 때 言及한 바 있었다. 그들 3枚同大의 方板은 外函에 비하여 보다 두껍고 鍍金도 兩面に 있는 바 前面에는 2枚의 長方形 金銅板을 각기 側板과 上下에서 別個의 金具로서 連結하였다. 그리고 이들 兩枚는 그 中央一處에서 다시 작은 고리로서 連結되어서 이 門扉를 開閉케 되었는데 이같은 兩種의 連結을 위한 金具에는 細部에 이르기까지 花紋이 細刻되어 있어서 그 華飾을 알 수가 있다. 그런데 이 門扉의 下端이 또한 腐蝕된 것은 他三枚의 銘文板의 경우와 같다.

그런데 銘板이외에 이 門扉(各板 橫 11.8cm 縱 22.5cm) 表裏 가득히 線刻된 神將立像은 모두 流麗하고 自由奔放한 刻線으로 鑿彫하였으며 周緣을 돌아서는 花紋을 장식하고 있다. 兩立



圖面 5. 舍利內函門扉 (裏)

像은 表背에서 서로 相對하는 姿勢를 보이고 있으며 頭上의 冠飾이나 甲衣의 樣式 등 新羅 景文王代인 九世紀後葉의 神將樣式과 그 書法을 오늘에 보여주고 있다. 이 神將에 比하면 外函 各面에 線刻된 七世紀前半의 神將들은 그 古拙한 樣式 등에서 2世紀가 넘는 年差를 짐작케 합이 있는데 각기 그 精確한 年代가 推定되고 있음에서 더욱 貴重하다. 이 같은 內函과 外函과는 藏置



圖面 6. 舍利內函 蓋板 (裏面과 ㄱ形金具)

의 年差가 있다는 사실과 이 內函에 있어서도 外函과 같이 蓋板과 底板이 있다는 사실이다. 매우 少片이나마 거의 같은 두께의 花紋을 새긴 鍍金銅片이 있기는 하나 다만 이것이 底板인지 斷定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이 方函의 뚜껑은 完品임을 알 수가 있다. 확실히 當初부터 造成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그 까닭은 이 內函과 外函은 舍利藏置의 큰 年差가 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또 舍利孔을 덮었던 石蓋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內外函이 모두 蓋板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兩代의 金銅方函은 크기에 있어 다르고 그 樣式에서 다르나 원래는 모두 底板이 있어서 完全한 函形을 이루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內函의 底面으로 推定되는 같은 두께의 花文을 새긴 金銅板이 小片이나마 復元되었으며 기타는 細片으로 수습된 까닭이라고 추정된다. (圖面 18) 그런데 內函上面의 蓋板은 一部分離되었으나 完全하며 또 內外에 鍍金

과 線刻된 호화스러운 寶相花紋이 中央과 그 주위에 새겨져 있어서 아마도 이번에 수습된 舍利函에서 가장 華麗한 장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이것은 方形으로서 1邊이 26cm인데 周緣이 꾸부러져서 뚜껑 모양을 이루었다. 이 1枚의 上蓋와 그 밑의 內函을 서로 連絡固定하기 위하여서는 따로 ㄱ字形 金具 4개를 別造하여서 이 上蓋4隅角에 파진 두개의 작은 長方孔에 插入시키므로써 그 ㄱ字形이다 方函의 각隅角을 嵌入시켜 固定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上蓋의 固定方式은 아마도 初有의 形式으로서 注目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花文裝飾에서 當代의 技工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 ㄱ字形 金具에는 兩孔에의 插入을 위한 突起가 두 곳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上面 兩側에는 다시 좀 더 큰 長方孔이 있으나 그 用途는 알 수가 없다. 이같은 方式은 近世의 一例이긴 하나 1968年 9월에 조사된 忠北 法住寺 5層木塔⁽²⁶⁾의 計五枚構成의 方形函이 表裏에 모두 銘文은 記각되었으되 이와는 달리 各板이 모두 分離되어서 4壁과 上面에 配置되었던 方案과도 相通함이 있다. 그러나 時代의 變遷과 佛道의 盛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다. 비록 裝置의 近似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結構의 方式과 華飾의 程度는 오랜 歲月을 사이에 두고 큰 差別相을 보인 것도 또한 否定할 수는 없을 것이다. 景文王代의 改造를 당하여서는 銘文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舍利具 一部를 塔의 頂上部인 鐵盤위에 두었다고 하였으며 또 한편 柱本舍利를 國王이 親見하였다고 하였으니 이때 銘文에 있듯이 「礎臼」(心礎方孔을 가리킨다)속의 舍利는 모두 一旦 들어내어서 檢分하였을 뿐 아니라 그곳 「柱本舍利」는 「唯無年月事由記」하였기에 內函을 新造하여 舍利一百枚와 法舍利 2種을 다시 그 안에 追納하는 동시에 「記題事由略記始建之源改作之故」하였던 것이다. 이 記銘과 舍利具의 追納을 위하여 이같은 金銅內函이 景文王때 마련되었는 바 그것이 方函을 이루고 또 各枚를 서로 連結한 까닭은 그 內部에 新舊 舍利具의 새로운 奉安을 위함일 것이다. 만일 銘文만을 記錄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上記한 바와 같이 文聖王代 昌林寺石塔誌나 또는 신라 廉巨和尚 金銅塔誌⁽²⁷⁾(國立博物館所藏. 會昌4年 신라 文聖王 6年甲子 서기 844년 雙鉤楷書 字徑六分 크기 縱 9寸5分 橫 5寸5分)과 같이 1枚로서 別置되었을 것이다. 이같은 점에서 미루어 신라 景文王代의 重修는 원래의 柱本舍利具에도 藏置方案의 變形이 있었으며 銘文과 같이 舍利具 種目的 追加가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더우기 찬란한

(26) 法住寺五層木塔은 비록 壬辰亂後의 再建된 國內唯一의 遺構이나 舊址위에서 건한 心礎의 舍利孔에서 古來의 方式을 역역하게 보여주었다. 이 조사에는 필자로 參與하였는바 上註(12)의 崔淳兩氏의 報文이 考古美術 9卷11號(1968年 11月)에 실려 있어 그 概要는 대략 다음과 같다.

舍利孔은 塔心礎石 上面中央에서 方形二段이며 그 上段에는 蓋石이 덮이고 下段部에는 舍利가 安置되었다. 이같은 二段方孔은 皇龍寺塔址의 古制가 反映된 것으로 보여진다. 즉 舍利孔의 規格은 皇龍寺보다 若干 작지만 格式은 같다. 舍利孔上段에는 두께 4.6cm 一邊 23.3cm의 方形塼이 덮여 있어서 舍利孔上段보다 작은 이 方塼둘레의 餘地를 石灰로 充填했으며 이 方塼中央에는 直徑 6cm內외의 圓孔이 있어 원래 이곳에 金屬製의 고리를 달았던 것으로 짐작되나 고리는 없다. 舍利孔안에는 4壁과 天蓋를 이루는 5張의 方形銅板이 붙여져 있었다. 이와 같은 2段方法과 方形平塼의 樣式은 그대로 皇龍寺 이래의 우리나라 本塔心礎의 古制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서 法住寺에서는 藏置品은 새로 交替되었으나 方孔을 지니는 心礎石은 그대로 古來의 자리를 지켜온 것이 틀림이 없다. 이같은 三國이래의 오랜 傳統方式의 傳承은 한국 佛教美術의 강한 保守性에도 있겠으나 皇龍寺塔과 법주사탑을 비교할 때 舍利孔뿐 아니라 17世紀 初頭에 만들어진 銘文銅板의 形式과 그 배치 方案에 이르기까지 近似함은 놀랄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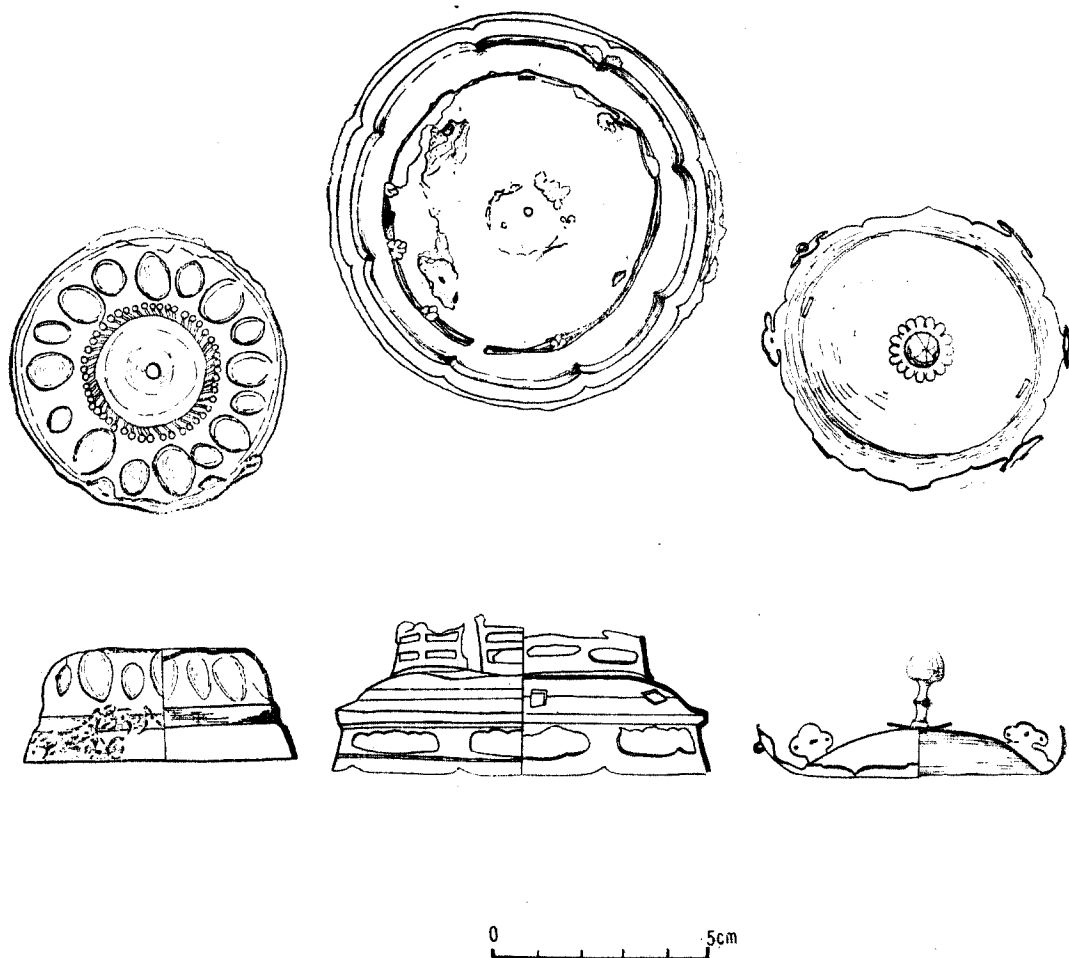
(27) 朝鮮古蹟圖譜 4冊—1568葉 朝鮮金石總覽 上卷 原州與法寺廉巨和尚塔誌(縱9寸5分 橫5寸5分 字徑6分楷書)

方形內函을 特造하고 그 三面을 利用하여 刹柱本記를 記銘한 것은 오늘날 위하여 또한 더 없이 고마운 우리 先人의 用意였다고 하겠다.

위에서 들은 大小二個의 內外方函은 각기 그 製作과 藏置之 年代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創建 혹은 後代重修때 각기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들 중 外函은 再檢時의 殘片收拾에서 內函은 더욱 그 記銘에 의하여 모두 이 大皇龍寺 心礎舍利 孔에서 傳來한 것만은 아무런 疑問이 없다. 그러나 이들 大形の 內外函 二個를 除外한다면 그 이외의 大小 舍利具는 과연 그것이 皇龍寺의 것인지 또는 他塔의 것인지 一旦 신중한 檢討를 받아야 함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중에서도 遊離된 舍利盒이나 所屬을 알 수 없는 部品을 정확하게 一括遺品으로 斷定하기란 사실상 어느 때나 신중을 요한다. 그 까닭은 盜掘者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學術的 價値 내지 原形保存이라는 觀點보다는 換金價値 내지 分離賣買가 그들의 常習이며 또 그같은 行爲가 때로는 그들의 犯行을 은폐하기도 하며 보다 有利한 利得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들은 出處에 대하여서 東問西答式으로 場所를 故意로 混迷에 빠뜨리기도 하고 一括遺品도 分離가 有利할 때는 사정없이 各個 賣渡하는 것이 常習이다. 古代 琉璃品을 수집하는 收藏家가 있다면 마땅히 一括되어야 할 舍利具 속에서도 그것만을 따로 高價로 他人에 賣渡한다. 이같은 일이 그들의 常習의 所行이고 보면 비록 皇龍寺 舍利遺品을 完全한 것이며 他品の 混在 내지 分離가 없었다고 그들 犯法者가 主張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의 用意는 따로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多幸히 上記한 바와 같이 一九六六年 가을 同學의 秦弘燮 崔淳雨 兩氏와 같이 事件後의 現地調査에서 舍利孔 안에 남은 殘片을 收拾하였고 그報文은 秦教授에 의하여 發表된 후 그들도 함께 國立博物館에 收藏된 今日에 있어서는 犯法者로부터 押收한 遺物의 考察을 위하여서는 이現場調査때에 수습된 破碎된 殘滓物을 통하여 다음에 기록하려는 銀製舍利塔과 靑銅舍利塔을 위시하여 몇가지 小品들만은 舍利孔안에 原在하였던 것으로 確定하려 하는 바이다. 그것은 예컨대 上舉한 八角舍利塔이나 8瓣形의 塔部品이 그 上下에서 서로 區別되고 復元되었다 하더라도 필자가 그들을 皇龍寺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은 上記와 같이 現場을 檢査할 때 前者의 것으로는 舍利塔의 基壇下臺에 돌린 八角眼象片이 수습되었고 다시 後者의 것으로는 銀製八瓣形屋蓋의 各稜角마다 달아놓았던 작은 귀꽃(反花) 3葉이 檢出되었기 때문에 이들 兩基의 金屬舍利塔이 모두 方形舍利孔 안에서 內外函과 같이 傳來하였던 사실은 틀림이 없다. 이같은 사실은 또한 古代遺物의 考察을 위하여 現場의 檢討가 必須하다는 사실과 비록 細微한 斷片이라도 그 收拾을 통하여 보다 重大한 解明과 復元に 引導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느끼게 하여 주기도 하였다. 그것은 더욱이 原狀이 몹시 교란된 경우에 있어서 그러하다. 이하 몇 項에 나누어 內外函에 이어서 확실한 舍利具 유품을 골라 기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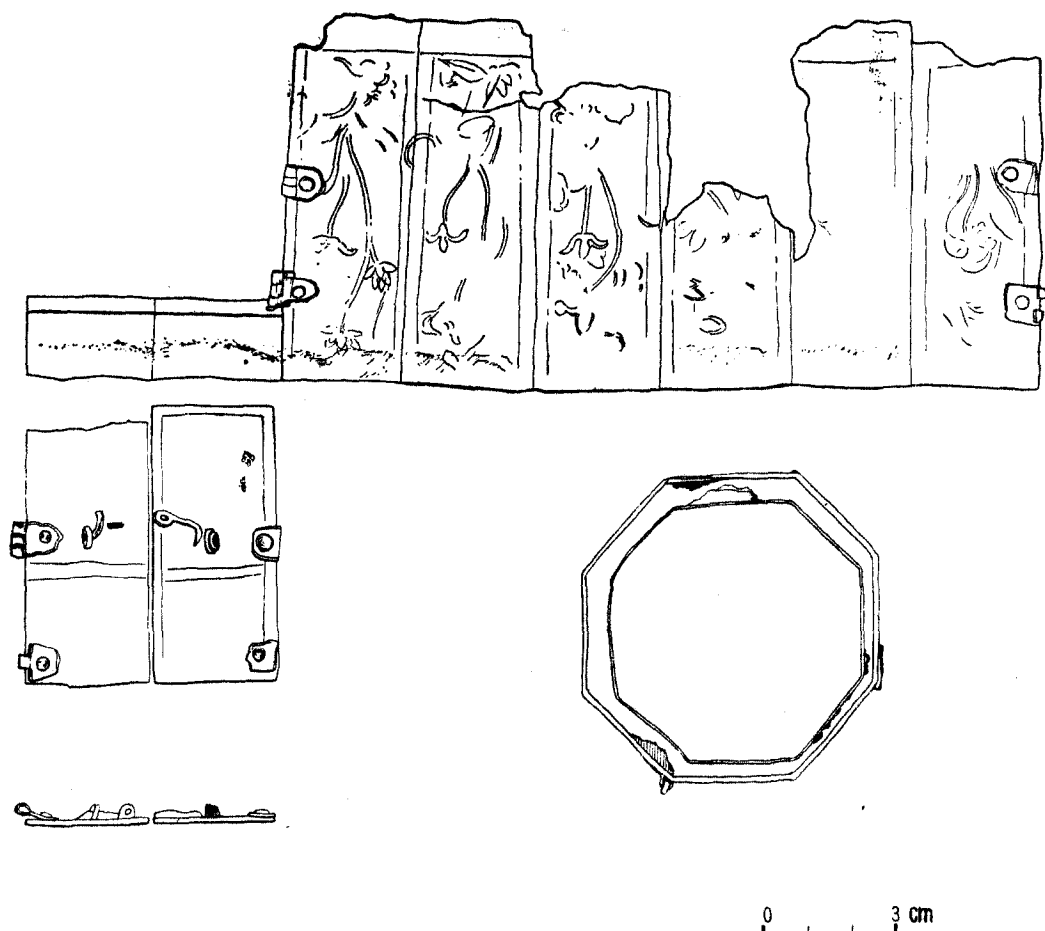
3. 銀製舍利塔(圖版 15-16, 圖面 7)

이 塔形具는 現在 臺座와 屋蓋 각 1點으로 構成되었다고 생각되나 塔身部는 아니 보인다. 먼저



圖面 7. 銀 製 舍 利 塔 (部 品)

臺座(徑 9.2cm 高 3.5cm)는 8稜을 이루고 眼象이 透刻되였으며 그 위에는 古代의 欄杆이 둥글게 둘러 있다. 그리고 屋蓋(徑 7.0cm 高 3.1cm)는 頂上에 蓮봉形 相輪이 있고 各稜마다 귀꽃이 있어 구멍에는 원래 영락이 달려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小銀塔의 年代는 아마도 景文王 重修때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 半圓杯形의 銀器가 1點 있어 徑 6cm 높이 2.6cm인데 頂上에는 花蕊文이 둘러있고 그 둘레에는 다시 大小 16瓣의 單瓣蓮花文이 양각되였으며 中央에는 小孔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이 銀塔과 관계 있는 그 部品인지 갑자기 判定할 수는 없으나 銀製이기에 이곳에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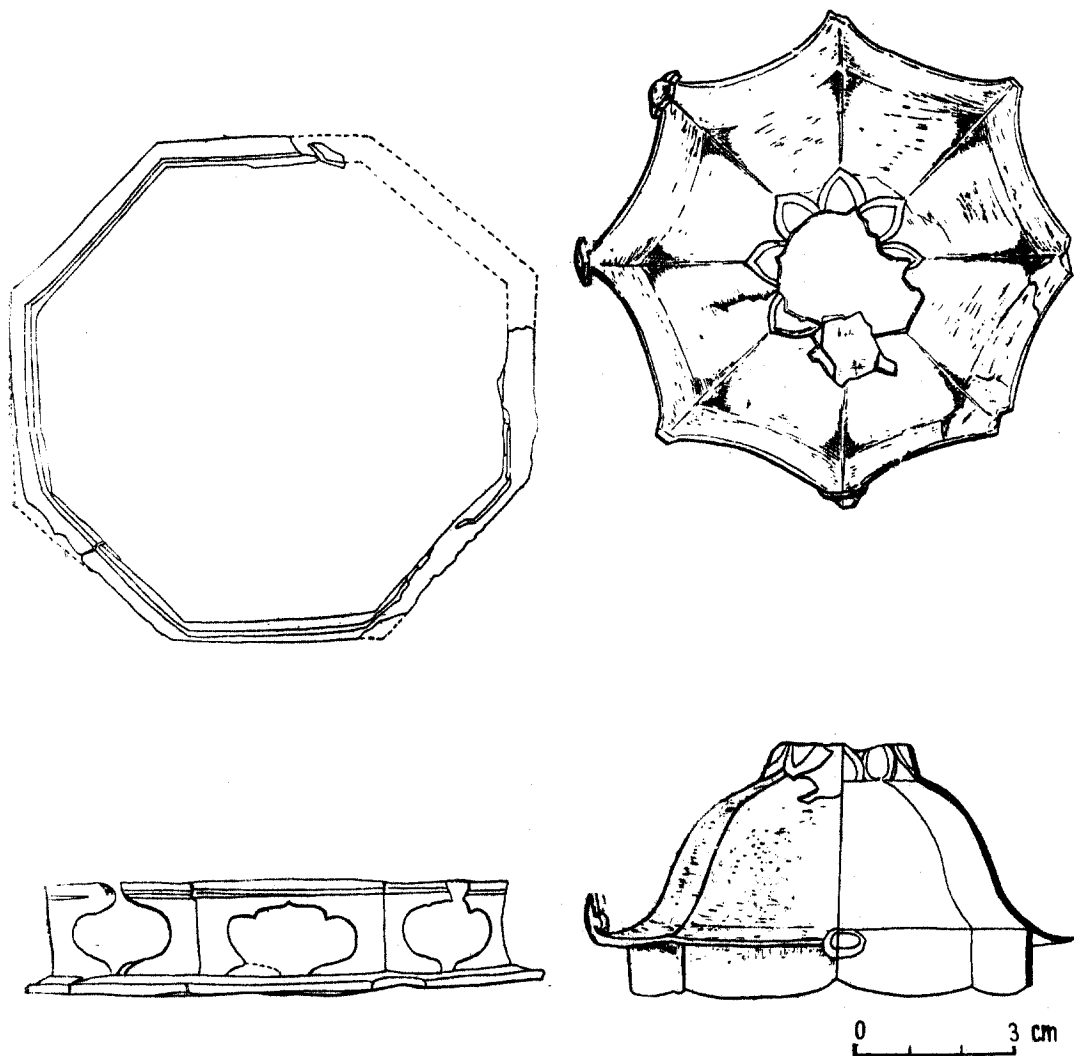


圖面 8. 青銅八角舍利塔 (塔身)

4. 金銅八角舍利塔(圖版 17, 圖面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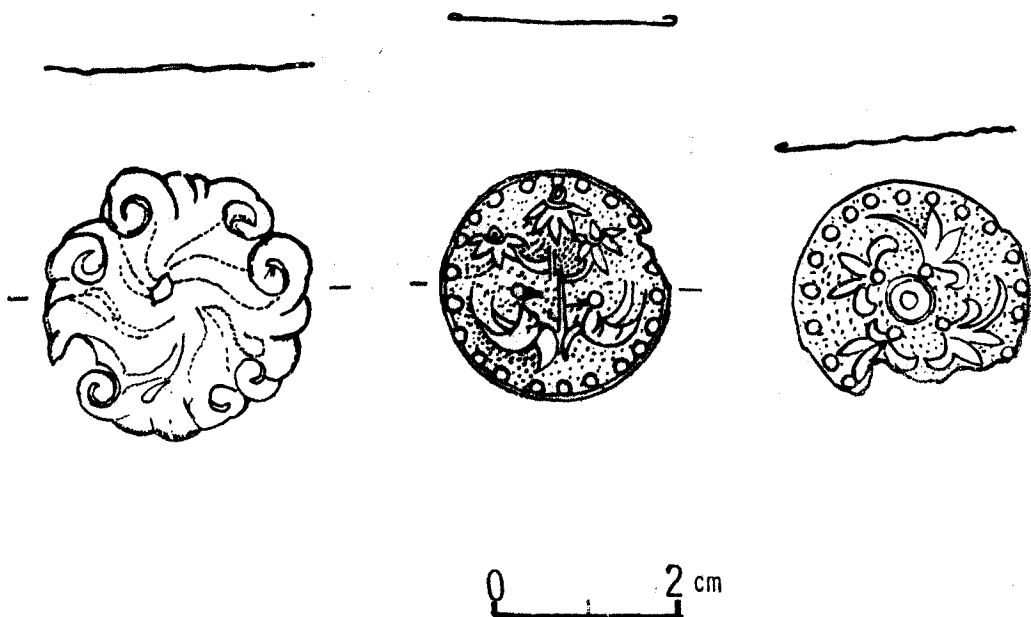
相輪部를 잃었고 下臺도 破損되었으나 8角의 塔身부와 屋蓋를 具備하고 있다. 臺座는 周緣의 眼象部片과 얇은 臺板片이 남았는데 直徑 9.7cm 高 2.2cm이다. 塔身부는 徑 7.1cm 높이 8.5cm 의 小品이며 兩面에는 따로 門扉가 달려 있어서 連結과 開閉를 위한 裝具가 작으나마 달려있다. 그리고 나머지 6面에는 각기 蓮花文이 선각되어 있으나 刻線은 鮮明하지는 못하다. 그런데 이 塔身은 內銀外銅⁽²⁸⁾의 2重으로 각기 만들어 끼운 사실이 주목되었다. 屋蓋(徑 9.5cm 高 4.8cm 또한 8角이며 두곳에 귀꽃이 남아 있는데 屋頂部를 돌아서 蓮花文이 돌려있는 것은 羅·麗의 石造 8角浮屠의 경우와도 같다. 그리고 塔身은 옥개 밑에 垂下된 雲文을 새긴 帳幕形안으로 끼워

(28) 高麗史 卷9 文宗 32年(1080) 7月條에 「是月興王寺金塔成. 以銀爲裏. 金爲表. 銀427斤 金144斤」이라 보인다. 拙稿 高麗興王寺址의 研究(東國大刊 白性都博士頌壽佛教學論文集 所收)



圖面 9. 青銅八角舍利塔 (臺座와 屋蓋)

진다. 이외에 長方形의 銀製 얇은 板 2枚(길이 7cm 幅 2.2cm)가 있어서 하나에는「諸法因緣生」이라 있고 다른 하나에는「諸法因緣□」이라고 각기 字徑 약 1cm로 縱書楷字體로 음각되어 있다. 이것이 과연 이 舍利塔에 소속되어 있었던 것인지 不明이나 銀製이기에 이곳에 부록하였다 그리고 이 塔의 年代는 정확하지는 못하나 옥개 頂上의 蓮花文이나 塔身의 銀銅의 2重板 構造 등이 감안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위의 銀製塔에 비할 때 그 年代가 降下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혹시 麗初까지도 내려오는 作品으로 추정하고 重修事實을 전하는 文獻과도 對照하여서 고찰하여 볼만하다.



圖面 10. 銀製小圓盤 三個

5. 銀製小圓盤 3個(圖版 18, 圖面 10)

周緣에 連珠文을 돌린 속에 中央에 花枝一本을 두고 그 左右에 雙鳥가 對立하고 있으며 間地에는 打點紋이 차 있다.⁽²⁹⁾(徑 2.5cm) 다른 1點(徑 2.5cm)도 周緣文은 같으나 4葉의 忍冬文이 둘러 있어서 마치 扶餘 軍守里寺址에서 出土된 箱子塼의 忍冬紋樣과 酷似함은 매우 興味롭다. 그리고 前者가 경주박물관에 진열된 長大石에 둥글게 돌린 같은 紋樣과 對比됨은 또한 注目할만 하다. 兩枚는 모두 薄板에 새긴 小品인데 원래 内外가 合하여 1枚가 되었던 것이 分離되었는 듯하며 그 用途는 알 수가 없다. 끝으로 크기가 거의 같은 1圓板(徑 2.8cm)은 鍍金이 鮮명한데 周緣에서 渦文을 透刻하였으며 點線이 보이고 있으나 또한 用途등 不明이다(徑 2.8cm). 3個中 첫째와 끝 것은 再調査에 발견된 것이며 忍冬文 內板은 押收品속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6. 靑銅小蓋(圖面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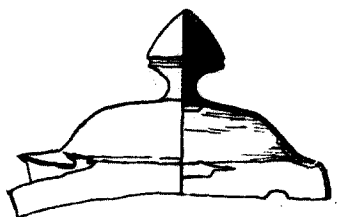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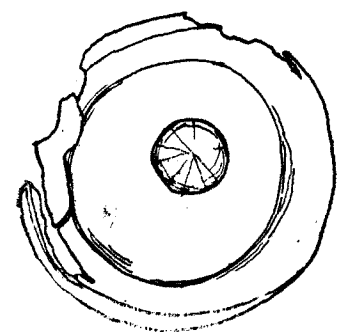
周緣이 破損되었는데 꼭지가 달린 둥글고 작은 뚜껑이나 身部는 찾을 수 없었다. 徑 4.3cm 高 2.5cm로서 舍利孔의 調査時 收拾된 것이다.

7. ㄱ字形 金具(圖版 11, 圖面 6)

1邊 3.2cm 高 1.5cm의 ㄱ形金具 3개가 舍利孔 底面에서 收拾되었는데 同一品 1개가 博物館

(29) 秦弘燮: 上註 21 參照.

秦弘燮: 皇龍寺木塔址發見 花樹對禽紋金具(李弘植博士回甲紀念 韓國史學論叢 所收 1969年刊)



圖面 11. 靑銅小蓋 (破品)

것으로 추정되므로 終末에 따로 도았으되 따로 附番한 小品 등은 金銀盒에 들어있었는지 또는 그중의 若干品이 上舉한 塔形과 有關한 部品인지 현재로서는 判定할 수가 없는 것 뿐이다. 필자는 이들 舍利具의 考察을 위하여 舍利孔과 同大의 2段의 木箱子와 內函의 模型을 만들어 이들을 收納하여 究明코자 하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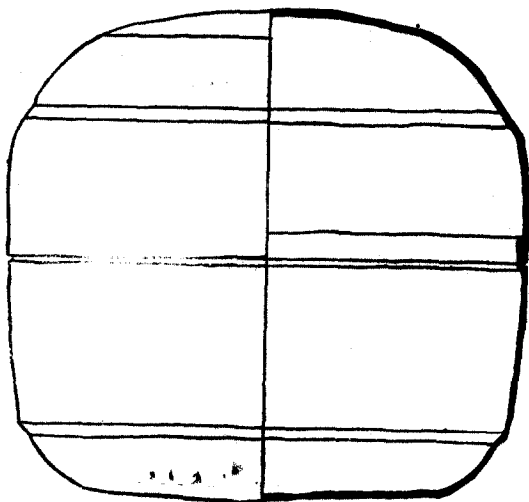
8. 金 盒 (圖版 19, 圖面 12)

徑 11cm 높이 10.8cm의 上下가 둥근 圓盒으로 中央部位에서 身蓋가 分離되고 있다. 주경에 損傷이 있으며 그 年代는 三國末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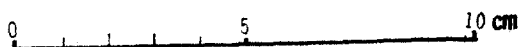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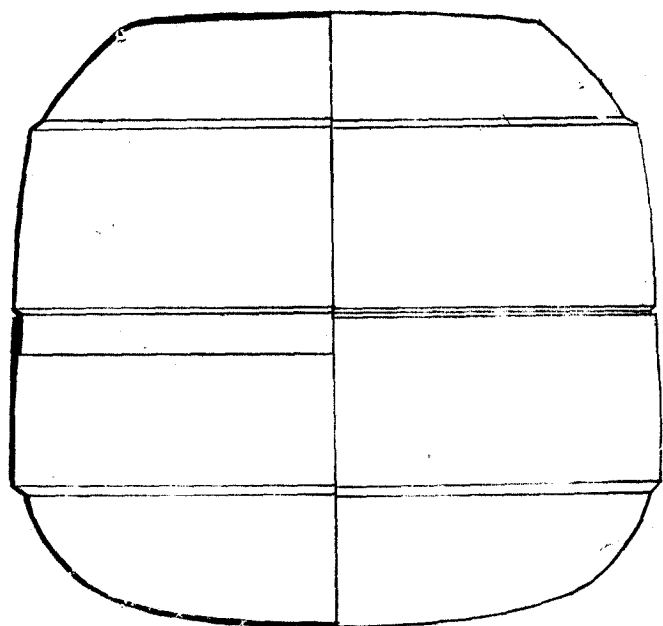
9. 銀 盒 (圖版 20, 圖面 13)

押收品 중에 있어서 모두計 4個이다. 이들은 內函이 이루는 4隅角의 上端에서 兩枚을 固定시키기 위하여 上蓋板 裏面의 4隅角에 각 1개씩 插入되었던 것이다. 이 形金具의 上緣 두곳에는 突起가 있어서 작은 長方孔에 끼도록 마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方形을 이루는 內函과 上蓋板을 4隅上面에서 固定시켰던 金具이다. 이외에 같이 收拾된 2個의 정첩은 內函各板의 上下 두곳에서 各板을 連結시키고 있던 것인데 그곳부터 遊離된 것이다. 이 金具는 모두 有紋의 것인데, 그중에는 無紋의 것이 2個(하나는 壁板에 달려있고 하나는 遊離되었다)가 있어 혹시 後補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와 같이 製作當時의 混用이 아니고 後補라면 麗代에 들어서의 重修 때의 補作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상(3)에서 (7)은 舍利孔을 조사하였을 때에 收拾된 部品 등 확실한 物的資料에 의하여 幢通사탑 사리 遺品으로 추정된 것들을 들었다. 그러나 이하에서 드는 金銀盒들을 비롯하여 靑銅方形小盒 등은 確證은 없으나 그 樣式 등에서 미루어 一括遺品에 속하리라고 생각되며 年代도 高古한



圖面 12. 金 盒



圖面 13. 銀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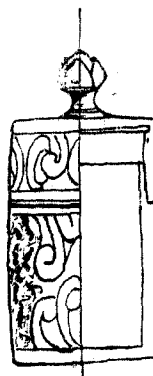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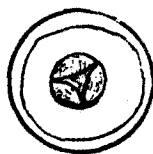
金製品보다도 더욱 큰 것으로서 形式은 거의 同一하다. 원래 이 兩盒은 아마도 겹쳐져서 舍利具를 그 안에 藏置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의 유리 念珠는 이 盒속에 들어 있었다고 犯人들은 傳하고 있다. 高 13.5cm 徑 14cm로서 近似値를 보인다. 年代는 위의 金盒과 같다.

10. 유리珠(圖版 21, 圖面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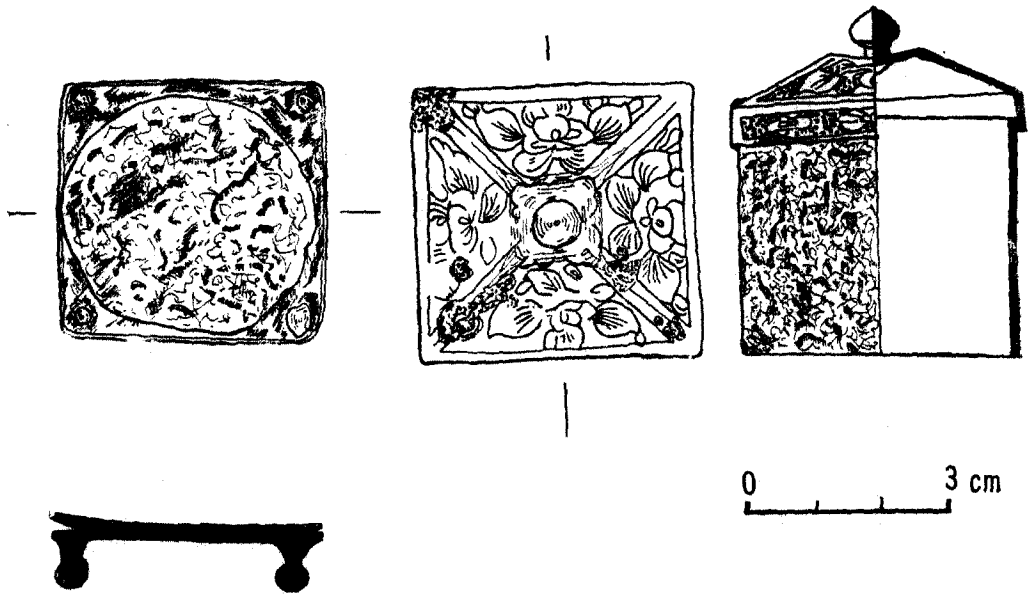
一連의 黑紺色을 보이는 둥근 구슬 96개로서 連結되었던 듯도 하다. 徑은 약 1cm이다. 이외에 靑綠色 小珠 4개가 있다.

11. 靑銅小圓筒(圖版 22, 圖面 14)

연꽃 꼭지가 달린 小筒으로서 身蓋의 內面에는 銀板이 끼여 있으며 外面에는 唐草文이 음각되어 있으나 鮮明하지는 못하다. 內部에는 白褐黑 3色の 小粒의 舍利 7粒이 들어있다. 全高 4.2cm 徑 2cm이다. 사리 크기 0.4cm이다.



圖面 14. 靑銅小圓筒과 유리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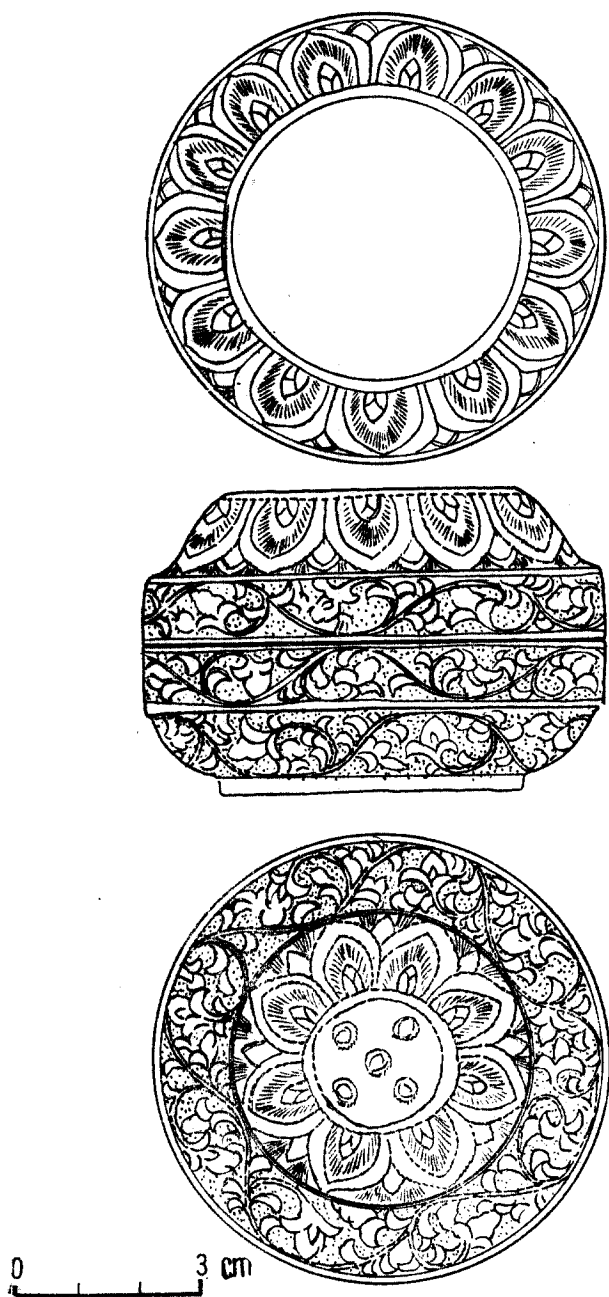
圖面 15. 靑銅方形小函

12. 靑銅方形小函(圖版 23 圖面 15)

身蓋가 두꺼운 녹으로써 分離되지 않으며 下端의 臺具는 4隅에 둥근 받이 달려있고 다시 그 上面에 圓板이 있는데 이 下臺단은 따로 分離된다. 蓋는 上部에 蓮봉꼭지가 달리고 對角으로 4等分되어서 花文이 각면에 음각되어있다. 身部 또한 紋樣가 있으나 두꺼운 녹으로 不明이다. 全高 6.2cm 身部幅 4cm인데 (11)의 靑銅舍利圓筒이 이 안에 겨우 들어가나 이것 또한 斷定할 수는 없다. 年代는 三國末로 추정하는 바 혹시 이들이 金銀盒에 들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銘文에 보이는 「金銀高座」라 한 것은 혹은 이것을 가리킨 것이 아닐까 생각한 바도 있었다. 그 까닭은 그 方形임과 內底에 圓板이 있어 그 위에 容器를 얹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13. 銀製圓盒(圖版 24, 圖面 16)

身蓋가 中央部에서 合하여졌다. 뚜껑 上面에는 8瓣蓮花紋이 細刻되어 있는데 子房은 없다. 그 밑으로는 重段으로 唐草文帶가 새겨졌는데 身部는 이 蓋部와 正反의 順位로서 같은 紋樣를 들렸다. 徑 7.3cm 高 5cm이다. 年代는 新羅로 추정되는 바 혹시 그 안에 다시 舍利具가 들어 있



圖面 16. 銀製圓盒

었다고 추정된다.

14. 蓮花盤形具(圖面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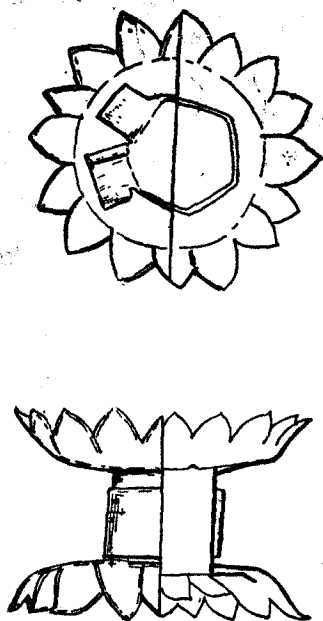
周緣을 돌아서 上下에 16瓣 蓮花를 돌렸으며 그 上下中間에는 마디가 있어 혹시 舍利塔과 有關한듯도 하나 확실하지는 못하다. 高 2.5cm 上徑 4cm.

15. 金銅花紋片(圖面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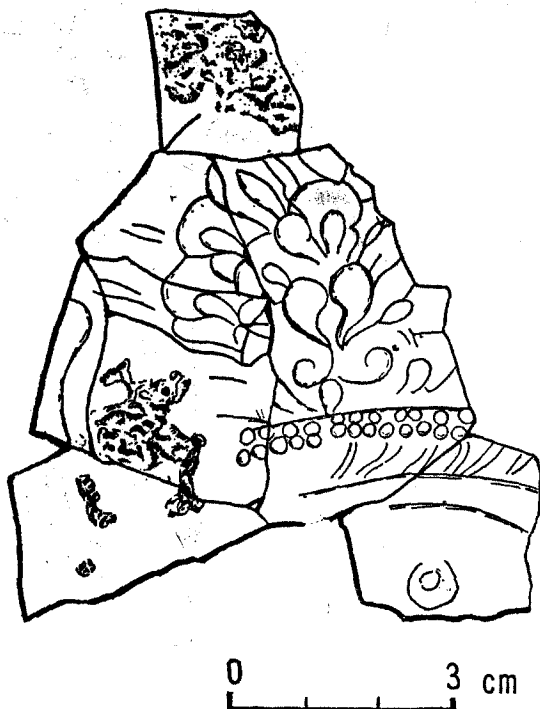
두께 약 1mm의 두꺼운 金銅板으로서 數片을 接合하였던바 花文과 連珠文을 볼 수 있다. 用途를 알 수 없으나 혹시 上記와 같이 內函과의 關聯에서 그 底板으로 고찰되기도 하였다.

이상 傳皇龍寺塔舍利品을 3區分하여서 考察하여 왔다.

(1)~(2)는 가장 확실한 內外函이며 年代를 달리하였으나 心礎方孔에서 傳來하였다. 다음으로 (3) 내지 (7)은 現場 조사에서 얻은 작은 破片등에서 미루어 一括品이 거의 確實한 것이다. 그리고 (8) 내지 (15)는 遊離된 것이나 犯法者의 傳言이나 古代舍利具의 類形등과의 比較에서 또한 모두 塔舍利具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小圓筒에는 실제로 舍利가 들어 있기도 하였으나 銘文에 「有金銀高座於其上安舍利琉璃瓶」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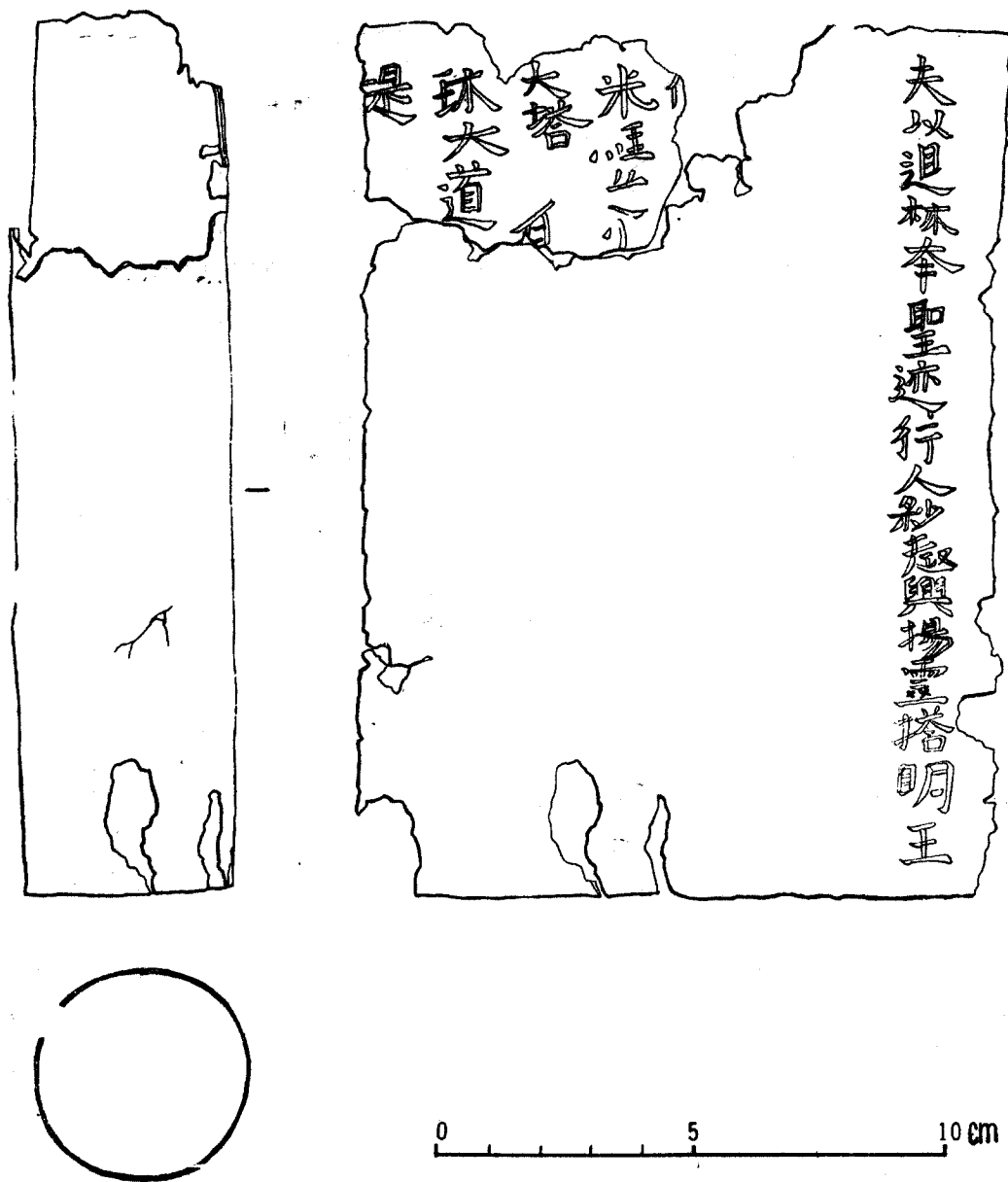


圖面 17. 金銅花整形具



圖面 18. 金銅花紋片

라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 分明하다. 그리고 이곳에서 「舍利琉璃瓶」은 破片이나마 전혀 檢出 내지 回收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그 存否조차 알 수가 없다. 金銀高座 또한 上記한 (3) - (4)의 舍利塔 中の 어느 것을 指稱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어느 造形을 가리킨 것인지 그것조차 조금하게 判斷할 수가 없는 것은 이같은 舍利塔의 年代가 모두 降下되는 것으로 기왕의 知見에서는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같이 3區分된 各種의 遺品은 纔연코 年代를 달리하여서 羅麗 兩朝에서 皇龍寺大塔이 여러 차례 重修되었기에 그때 마다의 柱本舍利具의 變動은 充分히 想定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앞으로는 銘文이나 三國遺事 등의 關係文字와도 함께 그 判定에 최대의 慎重을 期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以上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纔자는 이같은 大塔에서의 一括遺物이라고 犯人들이 傳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確實性을 기준 삼아서 區分하였을 따름이다. 그리고 末尾에 附記하는 것은 이 塔에서 같이 出土되었다고 그들로부터 一括押收되었으나 그 銘文判讀에서 他石塔의 것임이 判明되었기 때문이다. 혹시 이같은 混雜品은 이같은 金銅銘文筒 뿐 아니라 그에 同伴되었던 舍利具가 혹시 上記品目 中の 第3區分에서 混在하였을지도 모르겠다. 두려운 것은 無知의 所行이며 不法者에 의한 上代文物의 破壞行爲임을 다시금 느끼겠다.



圖面 19. 附, 仲和三年銘 金銅圓

〔附〕仲和3年銘 金銅圓套⁽³⁰⁾(圖版 25, 圖面 19)

鍍金된 銅板으로서 內空의 圓筒을 만들었으나 上下가 腐蝕 缺失되어서 經筒같이도 보이나 不

(30) 拙編: 續金石遺文 59頁 塔銘 仲和3年銘金銅圓套 및 寫眞.

明이다. 이 長 17cm 徑 4.2cm의 圓筒을 돌아서 8行 各行 16字의 文字를 雙鉤式으로 記刻하였는데 字徑 0.8cm이다. 判讀된 銘文은 다음과 같다.

夫以追攀聖迹行人妙趣興揚靈塔明王
通範也 昔有裕神角干成出生之業爲
□國之寶敬造此大石塔仲和三年更復
□□□將有普門寺玄余大德依无垢淨
光經造小塔七十七軀寫眞言七十七本安處
大塔 願言表示家 有妙寶人 得靈
珠六道含誠四生稟氣因此勝業共證菩
提 仲和三年癸卯二月 日移□

이것 또한 1964年 皇龍寺塔址에서 위에서 열거한 品目과 같이 발견되었다고 하며 犯行者가 서울로 운반하였을 때 필자 또한 當初부터 목격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銘筒이 과연 그곳에서의 發見 여부를 알 수 없다. 도리어 銘文을 통하여 石塔에 넣었던 사실과 그 연대가 皇龍寺塔誌에 명기된 景文王 12年 壬辰(872年)보다도 11年 늦은 仲和3年 신라 憲康王 9年 883년에 해당하고 있는 사실에서 이 圓形塔誌가 皇龍寺 舍利孔에 混入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 신라의 또 하나의 金銅塔誌의 출처는 지금 잡자기 알 수가 없으며 銘文 그 자체에도 「敬造此大石塔」이라 하였을 뿐 寺名이나 建塔年代를 明記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仲和3년에 이르러 無垢淨光經에 의하여 小塔 77軀를 만들고 眞言 77本을 寫하여 各塔에 넣어 大塔에 넣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銘文의 年代는 皇龍寺塔誌의 그것과 매우 接近하고 있을 뿐 이 圓筒을 그와 關係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圓筒만은 皇龍寺 舍利具에서 우선 除外되어야 하나 一括되어 있었으므로 이곳에 附錄하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것도 같은 犯行者에 의하여 아마도 경주부근의 石塔에서 약탈된 것만은 틀림이 없으며 그 시기도 1964年頃 皇龍寺塔址에 대한 犯行과도 前後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상기한 皇龍寺 舍利品目 第3區分 중에는 上記한 바와 같이 혹시 이같은 圓筒塔誌와 同伴된 것이 混在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이들의 年差가 11년에 불과한 사실에서 더욱 그러한다. 不幸한 일은 國家의 重要遺物에 대한 擾亂行爲라고 하겠는데 1960年代에 있어서의 古墳 石塔 등에 대한 그 같은 破壞行爲는 이 땅에 傳來하던 古文化財에 重大한 損失을 주었다고 할 것이다. 당시 필자는 그들의 犯行을 주목하였으며 被害의 現場과 그 약탈되고 분산된 遺物의 收拾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奔走하였었다. 皇龍寺塔 舍利具 또한 그중의 으뜸되는 一例로서 오늘 그들이 국립박물관에 保管된 사실을 돌이켜 感慨가 또한 無限하다. 특히 慶北一圓의 신라 石塔으로서 法廣寺⁽³¹⁾ 桐萊寺⁽³²⁾ 佛國寺 등 연속된

(31) 拙稿 新羅法廣寺石塔記(白山學報 第8號 金澤基博士古稀史學論義 1970年)

(32) 拙稿 新羅閔哀大王石塔記(史學志 第3輯 檀國大刊 1969年)

舍利掠奪事件의 事後收拾에 몸소 關與하여 필자 自身이 도리어 뜻밖에도 投書 등에 의하여 兩次에 걸쳐서 司直에 의하여 立件되었던 지난날의 괴로운 記憶이 이제 다시 새로워짐을 느끼겠다.

V. 心礎위의 方形石—宴坐石

이상 各項에서 필자는 1964年 12月 경주시 九黃洞에서 傳來하는 신라 皇龍寺 9層木塔址 中央의 心礎石에서 약탈된 羅代의 舍利具를 매우 간략하게 소개하여 왔다. 특히 前半에 있어서는 舍利品目 중 가장 귀중한 內函 壁板 3枚의 內外에 記刻된 이 大塔의 景文王代 重修記文을 설명하였으며 後項에 있어서는 그 銘文板과 같이 回收된 遺品 중에서 皇龍寺塔과의 關係與否를 감안하여 가장 확실한 內外函에서 비롯하여 필자 등에 의한 事後調査때의 收拾遺片 등을 證憑삼아 그들 品目중에서 한층 확실한 것을 選擇하였다. 다시 끝으로 殘餘品目を 一括하였고 末尾에 황룡사와 無關한 金銅在銘圓套를 부록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같이 크게 3區分하여서 그 舍利品目을 說明하였다 하더라도 그 年代에 있어서는 創建이래 羅麗 兩代에 걸친 前後 약 7百年 이 大塔의 重修가 거듭되었으므로 個個에 대한 年代考察 특히 遊離된 作品에 대하여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고자 하였다. 다만 가장 먼저 들은 內外方函 2件에 있어서만은 外函을 古新羅 善德王代 創建當初의 것으로 보아서 그곳 各面에 새겨진 神將立像의 復元을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았으며 內函 그 자체는 銘文이 記刻되어 있어서 당시의 重修事實 뿐 아니라 初建當時의 事由도 아울러 간략하게 알 수가 있었다. 더우기 이 內函을 이루는 塔誌는 景文王 12年(872年)의 年代가 그 主文末尾에 明記되어 있으므로 昨年에는 먼저 이 塔誌만을 學界에 發表하였었는데 그해가 황룡사 大塔重成의 巨役이 完了한지 滿 1100년에 해당되고 있어서 필자는 남다른 感銘을 느낀 바도 있었다. 그러나 그후 다시 滿 1年이 지나서 이제 그 塔誌와 같이 수습되었던 舍利具의 정리가 거의 끝났으므로 이곳에 既發表된 塔銘과 함께 묶어 이 大塔에 대한 기록을 삼고자 한다. 그러나 필자가 이 글을 끝냄에 앞서서 경주 古蹟 중에서도 오랫동안 가장 주목하여온 이곳 황룡사 大塔址의 中央에서 舍利孔을 덮고 있었던 巨石에 대하여 간단하게 言及하고자 한다. 新羅三寶 중의 둘이 이 皇龍寺의 塔像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기에 羅代에서 麗代에 이르기까지 이 大塔에 대한 여러 차례의 重修는 그 遺墟나마 오늘의 傳來를 結果하였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경주를 찾을 때마다 이곳 堂塔址를 찾았는데 필자가 恩師高裕燮 선생을 따라 우리 나라 塔像을 연구하여 온 까닭도 말하자면 오늘 이같은 한국 最大塔像의 遺址나마 오늘에 전래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學的關心이 항상 지속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같은 논의는 且置하고 塔址의 巨石에 대한 問題를 논의한다면 이 大塔의 心礎를 덮고 있는 一大方石은 果然 무엇이냐 하는데 대한 오랜 疑問이라 하겠다. 外人學者⁽³³⁾는 이 心礎의 조사를

(33) 藤島玄治郎:「朝鮮建築史論」第1篇 第3章 皇龍寺條에서는 「一民家가 그위에 建立되어 心礎의 調査를 不可能하게 하고 있다」고 하였다(上註 5).

하지 못하였으며 國內에서는 그것도 心礎로 解釋하려 하였으나 이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見解이라 하겠다. 필자는 이 巨大한 方形에 가까운 一石을 따로 해석하여 왔다. 그것은 고려末 蒙古亂에 이 大塔이 一朝成灰된 以後 相當歲月이 지나 寺墟의 整理가 이루어질 때 關係된 僧俗 사이에는 아직도 舍利方孔 石蓋 밑에서 保存되고 있던 이른바 銘文에 보이는 「柱本舍利」의 保護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있었으며 그에 따라서 이 舍利寶를 그 塔址에서 그대로 保護하기 위하여 一大石을 塔址 中央으로 옮겨 그 위를 덮었다고 생각하여 왔다. 或者에 따라서는 大塔의 刹柱를 이 一段 높은 巨石위에 建立한 것으로 誤認할지도 모르나 이 巨石은 그같은 大塔의 刹柱 根本을 받기 위하여서는 安定하지 못할 뿐 아니라 또 그같이 하여야 할 아무런 必要도 없으며 古來로 국내 뿐 아니라 佛敎各國에서의 遺例도 또한 없다. 大塔의 刹柱는 당대의 方式을 따라서 平坦한 心礎石 中央에 놓이어서 그 刹柱로서 方圓의 舍利孔을 덮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서 그리고 後代에 이르기까지 우리 나라에서 뿐 아니라 東洋三國에서의 木塔架構에서 適用되었던 方式임에 틀림이 없으며 皇龍寺塔 또한 결코 그 例外는 아니다. 그러므로 이 大塔 心礎石위의 오늘에 전하는 一大石은 大塔罹災後에 다른 곳에서 그곳으로 옮겨졌는 바 그 年代는 三國遺事에 의하여 대략 高麗末(忠烈王 이후)로 추정하고자 한다. 皇龍寺塔이 高麗 高宗 25年(1238)에 불타고 그 後 塔址는 아마도 蒙古亂이 平定되지 못하던 相當期間中 그대로 放置되어 있었으며 塔址에는 大塔이 灰燼한 후 그 殘滓物로서 덮여 그대로 상당한 歲月이 흘렀을 것이다. 이 大塔心礎의 舍利가 그대로 있음에 그 保護策을 강구한 것은 相當한 시간이 경과하여서 時局의 安定과 戰災復舊의 움직임이 있었던 後이라고 봄이 더욱 順理일 것이다. 그리하여 大塔은 마침내 再建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舍利寶의 永久保全만을 꾀하였다고 생각하며 이것은 특히 경주에서 戰火를 모면한 寺院과 힘을 모아 皇龍寺 관계의 僧侶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그 같은 戰後의 고마운 僧俗의 配慮가 1964年 盜難까지 오랜 세월에 신라 舍利寶의 保護를 결과하였던 것이다.

다시 필자는 이 心礎위의 大石을 皇龍寺에서 創建以前부터 傳來하던 유명한 宴坐石으로 추정하여 왔으며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같은 생각에는 變化가 없다. 이 宴坐石에 대하여서는 三國遺事⁽³⁴⁾ 塔像篇 初頭に 記事가 있으므로 그것을 자세하게 引用할 것도 없을 것이다. 다만 新羅의 七處伽藍墟의 하나라고 믿어왔던 皇龍寺는 釋迦와 迦葉佛의 講演之地로서 宴坐石은 神聖視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三國遺事에도 그 크기와 傳來의 場所 그리고 蒙古亂 이후에 있어서 「佛殿後面」인 원위치에서 이 宴坐石이 또한 地中에 거의 埋沒되어서 地面과 거의 같은 모양을 보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年代가 「至元18年辛巳歲」라 하였으니 이

(34) 三國遺事 卷3 塔像篇 석두에 迦葉佛宴坐石이 보이고 있는데 一然선사가 이것을 目睹하였기에 「在佛殿後面 嘗一謁焉」이라고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佛殿은 三尊像을 奉安하였던 金堂을 가트키는지 未詳이다. 그는 그 크기와 現狀을 적고 「惠日沈輝不記年. 唯餘宴坐石依然. 桑田幾度成滄海. 可惜巍然尚未遷」이라 讚하고 있다.

해는 고려 忠烈王 7年 서기 1281年으로서 大塔燒失의 해인 高宗 25年(1238年)과는 실로 40餘年이 지난 후의 일이다. 戰火가 거치고 大塔址 中央에 아직도 放置되어 있는 舍利寶物 寺址에서 永久 保護하기 위한 對策은 이때 이후에 강구되었다고 생각하는 바 그것이 곧 佛殿後面」의 宴坐石을 이곳 塔址 中央으로 옮겼다는 推定이다. 이같은 필자의 推定은 이 大石의 形態와 그 크기 등에서 귀결한 것이며 그것이 단순한 假定이 아님을 강조하고자 한다.

먼저 이 돌에 대하여서는 三國遺事 卷3 宴坐石條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이고 있다.

石之高可五六尺 來圍僅三肘. 幢立而平頂. 眞興創寺以來. 再經災火. 石有折裂處. 寺僧貼鐵爲護.

라 하였다. 이와 같이 迦葉佛宴坐石條에 돌의 크기와 形狀과 來歷을 기록하되 거듭 災火를 만나 折裂處가 있어 寺僧이 그곳에 貼鐵하여 保護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같은 保護措置는 말할 것도 없이 이 宴坐石의 重要性에 따르는 것이며 皇龍寺로서는 그 傳來가 곧 前佛時伽藍之墟며 七伽藍墟의 하나임을 말하는 物證으로 삼아왔기 때문이다(三國遺事 卷3 迦葉佛宴坐石條).

필자는 現在의 이들의 크기가 一然禪師의 기록보다는 작은 理由로서 이들은 上記한 바와 같이 후에 塔址로 옮겨와서, 첫째 그 底面을 깎아 平坦하게 加工함으로써 舍利孔의 뚜껑으로서의 變形이 있었다는 것과, 둘째는 上記한 기록에도 明示된 바와 같이 災火를 거듭 입어서 돌에 折裂處가 있으므로 寺僧이 貼鐵爲護하였다고 있어 이같은 돌 그 自體의 折裂處가 그후 모두 脫落됨으로써 돌의 높이나 크기는 모두 따라서 縮少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底面의 加工은 圖版에서 본 바와 같이 中央에 圓孔을 파서 金銅舍利函頂上의 圓環을 받게 하였으며 그 底面四方의 小孔은 心礎石의 네 곳에 이에 맞는 鐵釘을 꽂아서 이 大石의 固定을 꾀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加工 특히 底面에 加하여진 것과 上面部의 脫落은 필연코 이 돌의 높이를 現在의 高 98cm로 減縮시켰을 것이다. 다음에 돌 그 自體의 돌레의 縮少 또한 貼鐵爲護하던 折裂處가 오랜 歲月에 脫落됨으로써 또한 縮少되었을 것이다(現在 中心幅 162×117cm). 그러므로 現在 心礎石을 ~~만고~~ ~~있~~는 이 돌의 크기가 遺事의 기록과 近似하면서 그보다 작은 理由를 理解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같은 事實보다도 이 돌을 필자가 宴坐石으로 보는 가장 큰 理由며 또 가장 확실한 根據는 이 돌 頂上部 中央에 半破된대로 남은 人工에 의한 圓孔을 가리켜야 할 것이다. 이 圓孔은 바로 上記한 바 이 돌의 形狀을 기록할 때 「幢立而平頂」이라고 한 貴重한 文字에 의하여서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一然禪師 그 자신이 이 돌을 目擊하고 있기에 「宴坐石 在佛殿後面 嘗一謁焉」이라고 하였던 것이다. 問題는 「幢立而平頂」에 있으며 平頂이라 한 것은 頂上平面을 가리킨 것이나 오늘의 現狀은 그 一端을 除外하고는 北으로 斜面을 이루어 頂面部의 缺落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끝으로 「幢立」이라는 것을 해석하여야 하겠는데 이것은 곧 이 돌위에 아마도 中央을 택하여 石幢을 세웠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 石幢 그 자체는 보통 多角面을 이루는 長方石柱를 가리키며 오늘 國內에도 麗代의 作品을 남기고 있으며 開城 善竹橋의 石材一

部⁽³⁵⁾도 또한 그곳에 새겨진 梵字와 多面인 점에서 寺址에서 옮겨진 石幢으로 추정되어 왔다. 필자는 宴坐石의 「平頂」한 上面을 利用하여 그 위에 幢을 세웠다고 생각한다.

幢이란 원래 王者의 儀衛 猛將의 指麾에 사용되었던 軍旗이나 佛은 法王으로서 모든 魔軍을 降伏하기에 그 說法을 建法幢이라 일컫고 또 幢으로써 佛과 菩薩의 莊嚴標幟로 삼는다. (望月 佛教大辭典 4卷) 三國遺事 卷3 原宗與法條에 「寺寺星張 塔塔雁行. 豎法幢 懸梵鏡」이라고 한 豎法幢이 이같은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겠다. 다만 文獻인 遺事에서 자세한 幢에 대한 說明이 아니 보이나 「幢立」이라 하였으니 이같은 石幢建立을 위하여서는 그것을 固定시키기 위하여 石幢底面에 둥근 축을 마련하며 그를 插入하기 위하여 臺石上面에도 또한 圓孔을 파야 한다. 이것이 新羅石造物의 通有의 特性으로서 石燈竿石이나 石柱 등 建立에 따르는 固定方式의 하나임은 다시 말할 것도 없다. 그리하여 현재 이 心礎石 中央을 차지하고 方形的 舍利孔을 덮고 있는 이 大石이 바로 그 위에 石幢을 세웠던 下臺石이며 記錄에 따라서 蒙古亂에 殿塔이 罹災한 후 「夷沒」되어 「僅與地平」이라고 傳하였던 宴坐石 그 自體의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皇龍寺가 火災를 만나 廢墟가 된 후 寺僧에 의하여 廢墟에 남은 貴重遺寶를 保護하고 또 傳世하기 위하여 兩大貴重品目인 塔舍利와 宴坐石을 이같은 方式으로 한곳에 모아서 一舉兩得의 同時效用을 거두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蒙古亂이 平定되고 國內秩序의 回復을 얻은 뒤의 일이므로 上記와 같이 至元 18年 이후의 일이었을 것이다. 古人이 戰災를 입고 殿塔이 燒失된 後에 있어서 寺塔을 再建하지도 못하는 마당에서 國家와 國民의 믿음이 두텁던 大塔에 대하여 이만한 配慮가 있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다. 더욱 이 新羅三寶의 으뜸인 皇龍寺大塔의 柱本舍利가 心礎안에 아직도 健在하고 있으며 그것이 오직 一枚의 쉽게 열 수 있는 方形 石蓋로서 덮여 있었을 뿐이었으므로 그들은 佛殿後面에서 거의 埋沒된 宴坐石을 옮겨 그 위에 덮음으로써 宴坐石 그 자체의 保護와 地表위의 露出도 아울러 期하였던 것이다. 迦葉佛宴坐石이 幢形의 前佛時 伽藍之墟임을 계속 표시하면서 그 둘은 동시에 신라 第一의 大塔舍利를 누르고 그 保護를 기하여 왔다고 필자는 추정한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 塔址에 대한 오랜 注目과 또 塔舍利盜難事件이 일어난 이후 1966年 이 大石을 들어 올리고 舍利孔의 調査를 통하여 위와 같이 考察⁽³⁶⁾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서는 또 異論이 있을 것이므로 필자는 그 유명한 皇龍寺의 宴坐石이 오늘 地表에서 우리가 目擊할 수 있는 바로 大塔址 中央의 그 돌이라고 추정한다.

(35) 高裕燮 松都古蹟 271頁. 「善竹橋橋材一部에 梵文 陀羅尼石幢의 一部가 끼어 있으니 이는 부근의 妙覺寺址의 遺物이다」.

(36) 蔡弘燮 上註 21 참조.

이 心礎石 위의 大石에 대하여서는 皇龍寺 塔誌主文에서 第3枚에도 「壬辰年 12月 6日 率群僚而往. 專令舉柱觀之. 礎石之中有金銀高產」라 하였는데 舉柱라 한 것은 木刹柱를 들었다는 뜻이며 礎石은 中心礎石에 臼形으로 파진 方形的 舍利孔을 가리키는 다시 말할 것도 없다. 만일 刹柱가 大石위에 있었다면 그 밑의 圓孔이 舍利孔인데 그것은 불과 底面의 직경이 14.7cm 현재의 높이 11.8cm의 小孔이므로 舍利孔으로서 밝혀진 많은 遺物을 넣을 수 있는 것도 너무나 明白하다.

皇龍寺는 오늘 비록 廢墟를 보이고 있을 뿐이나 그곳을 조심스럽게 注目할 때 丈六佛의 巨大한 座臺를 비롯하여 가장 重要한 塔址가 남아 있으며 7面4間을 이루던 東洋大塔의 60餘個의 遺礎 方石이 原位置를 지킬 뿐 아니라 그 中央의 巨大한 自然石의 心礎에는 비록 舍利寶가 不幸한 經緯를 밟아 그 保存의 자리를 옮겼다 하더라도 그 위에는 宴坐石이 鎮座하고 있어 新羅三寶인 塔像을 具備하던 大皇龍寺의 殘影을 오늘에 남기고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이 寺址의 整理가 있을 것을 믿으며 堂塔址에 대한 調査가 새롭게 이루어질 것을 또한 바라는 바이다.

附 言

끝으로 필자는 이 글을 끝맺음에 있어서 남다른 所懷를 누를 수가 없다. 일찌기 恩師의 뒤를 따라 우리 나라 古代美術 그중에서도 古代塔像研究에 힘을 모아왔다. 그리하여 해방 직후에 先師의 「韓國塔婆의 研究」를 刊行하였으며 필자 또한 古代彫像의 調査를 進行하여 오는 한편 해방후 특히 1960年을 前後하여 國內에서 學術調査 또는 不法으로 出現하는 塔婆 關係資料의 集成을 위하여 힘을 모아왔다. 그 중에서도 이 글에서 논의한 皇龍寺塔 舍利寶는 그 質量에서 우리 나라 最大最貴의 것이라 하겠다. 이것이 잡자기 서울市內에 犯法者의 손으로 出現하였을 때의 놀라움을 필자는 生涯를 통하여 잊을 수가 없다. 그리하여 그 回收를 위한 努力은 마침내 어려운 몇 고비를 겪으면서 오늘의 安住處를 얻었던 것이다. 1971年 9月 필자가 學園에서 國立博物館으로 자리를 옮긴 直後 먼저 이 塔舍利를 찾았었고 1年을 要하여 먼저 塔誌判讀에 注力하였으며 그후 다시 1年 교란된 舍利具의 정리를 期하여 왔던 것이다. 그리하여 國立博物館 奉職이라 滿2年이 걸려서 이 舍利具에 대하여 필자의 적은 能力과 짧은 시간안에서 整理와 기록을 일단 끝낼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多幸한 일이다. 그 사이 滿2年 景福宮 新館으로의 移轉과 開館이란 力不及의 所任을 進行시키면서 틈을 얻어 때로 이 舍利具와 相對할 수 있었던 그 時間만이 悔恨이 따르기는 하였으나 研學과 歡喜의 한 때였다. 「塔의 나라」인 우리나라에 있어서 일찌기 신라의 帝京을 制壓한 높이 225尺의 東洋大塔의 「柱本舍利」를 오늘에 밝혀 보려는 努力은 확실히 이 部門研究에 尤의하여 온 필자로서는 過分한 일이기도 하였다. 大塔重修가 이루어진 후 滿 千一百年을 맞아 이 拙稿를 마련함에 다시금 새로운 감회를 참을 수가 없다. 그것은 더우기 1966年 佛國寺釋迦塔舍利盜取未遂사건이 發生하였고 그 당시 文教部 文化財委員會에 참여하였던 필자는 이 事件직후 조직된 被害文化財收拾對策委員의 한 사람으로서 그 事後收拾에 힘을 모았다. 그리하여 기왕에 不法者에 의하여 약탈되고 分散된 것이나마 그 回收와 교란된 學術價値의 考察을 기하고자 하였다. 오늘 10年이 지나서 당시를 회고하면서 이같은 形式로나마 受任의 일단을 기록하고자 한다. 다행히 이들 황룡사 舍利具의 一括유품은 오늘 필자가 봉직하고 있는 국립박물관에서 國庫歸屬(1971年 7月 30日附 新收品 2313番부터 2325番까지)되

어 있어 앞으로 그 公開를 기하려 한다. 끝으로 이 글을 마련함에 있어서 鄭永鎬教授의 配慮와 國立中央博物館同僚 여러분 특히 林永周 高承台 兩氏에게 감사하는 바이다. (1973年 9月 25日)

〔附記〕 宴坐石은 近世까지 記錄에 보이어서 皇龍寺址에서 傳來하였던 사실을 알 수가 있다. 그 文獻을 列擧하면 다음과 같다.

1. 東國輿地勝覽 卷二十一(慶州古跡條)

○迦葉宴坐石. 在皇龍寺. 石高可五六尺 圍僅三肘. 俗傳迦葉宴坐石.

2. 梅月堂金時習 四遊錄

○戲宴坐石(未來佛說法宴坐之石. 乃孟浪之言也. 今爲火所燒折裂)

宴坐何年說密嚴經名 一遭火劫上頭尖 未來若臨漸漸處 說法還應意不恬(이곳에서 「上頭尖」이라한 것은 塔址上에서의 現在의 形態와 같다. 즉 高麗末에는 「幢立而平頂」이라 하여서 「平頂」이었던 것이 「上頭尖」이라고 한 것은 그사이 上頂部가 脫落된 까닭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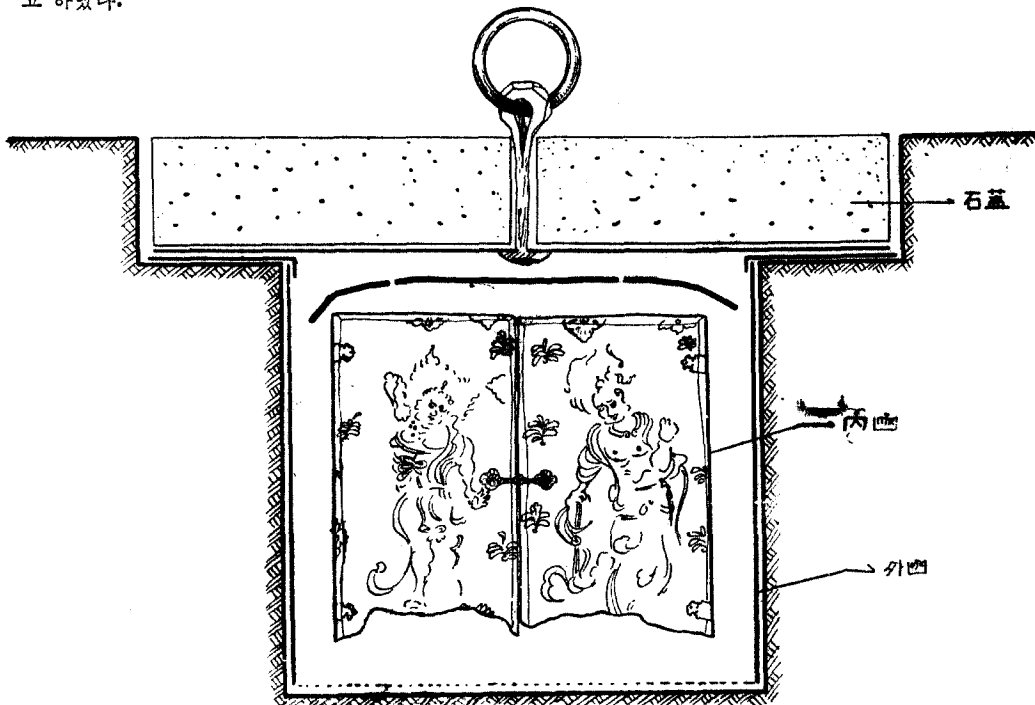
3. 東京雜記 卷二 古蹟

○迦葉宴坐石在皇龍寺. 石高可五六尺圍僅三肘. 俗傳迦葉宴坐石. 又有釋迦丈六像. 眞平王所鑄. 黃鐵五萬七千斤. 黃金三萬分.

이에 대하여 同卷刊誤에는

按高麗初此石已剝落. 寺僧貼鐵爲護未久

已夷沒與地平云則今豈有宴坐石可指者라 하였다. 또 日政初 慶州에 居住한 諸鹿央雄氏(前慶州博物館長)은 「新羅寺蹟考」(油印) 皇龍寺條에서 「寺內에 迦葉宴坐石이 存하다고 世傳되나 지금 이것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皇龍寺舍利函 藏置圖 金銅內外方函

100

THE UNIVERSITY OF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LIBRARY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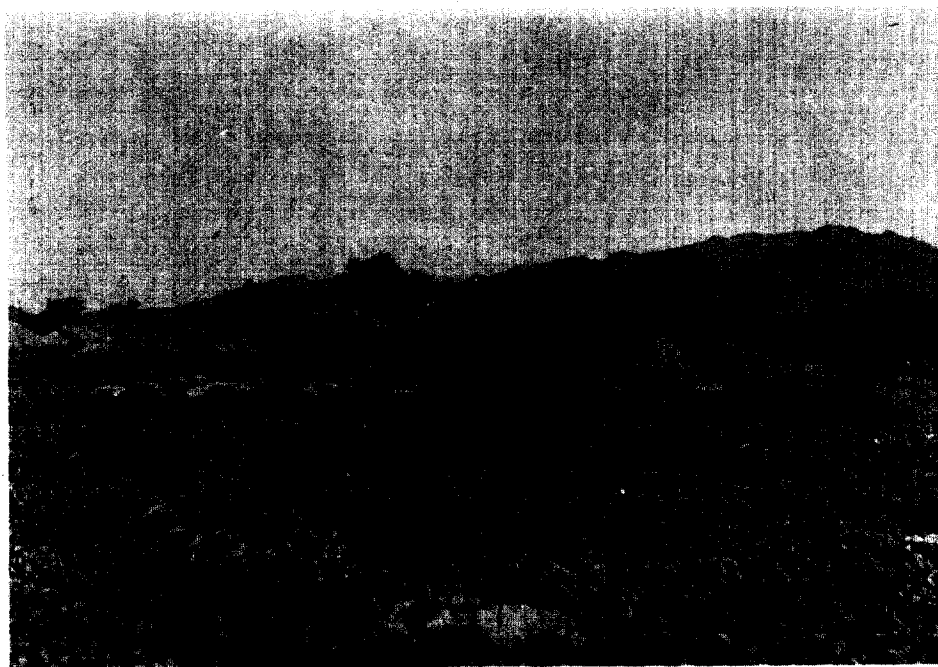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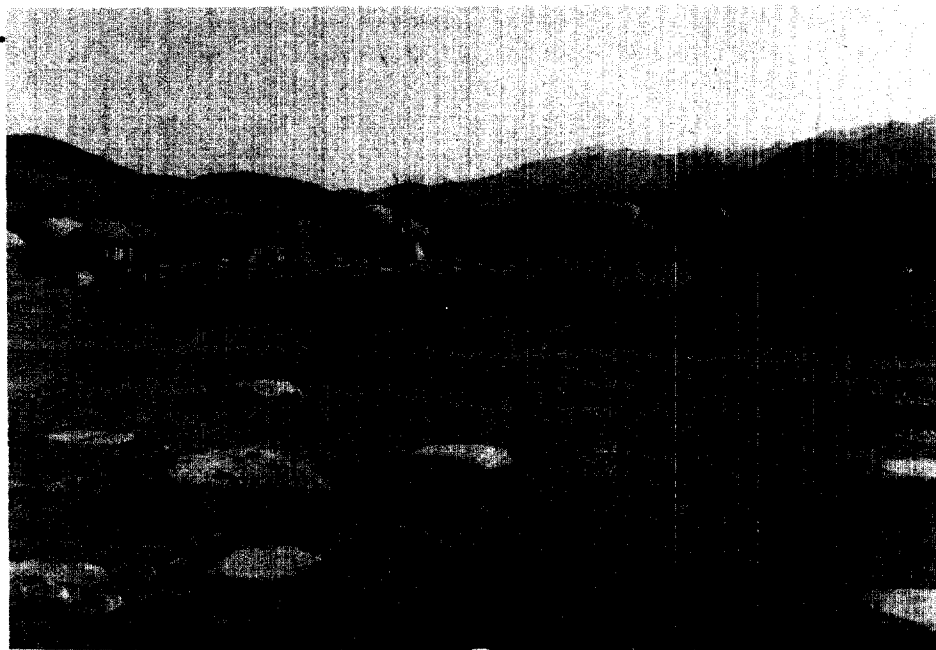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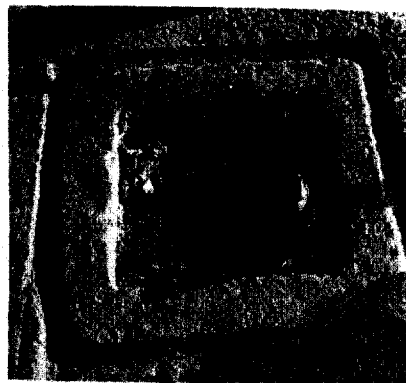
1. 皇龍寺塔址 全景 (農家撤去前)



2. 同 上 (同上撤去後)



3. 心礎上の 方形石 (北쪽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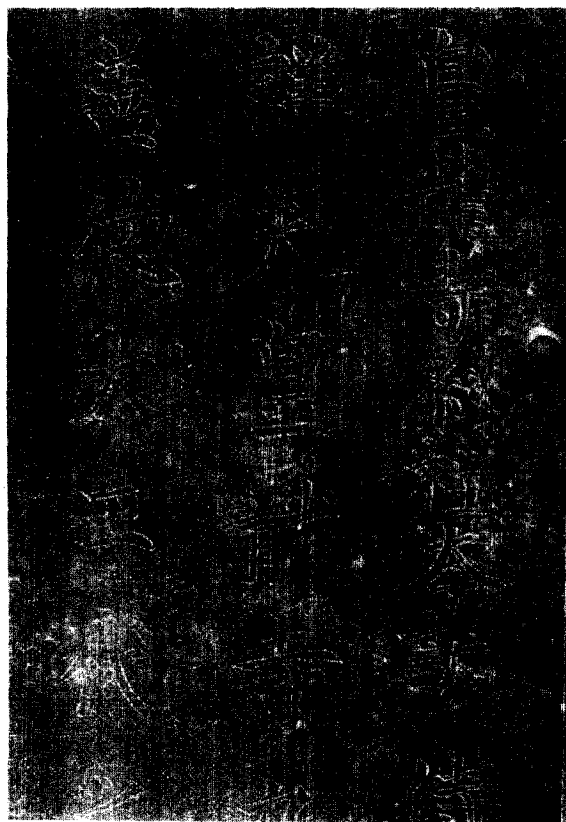
5. 舍利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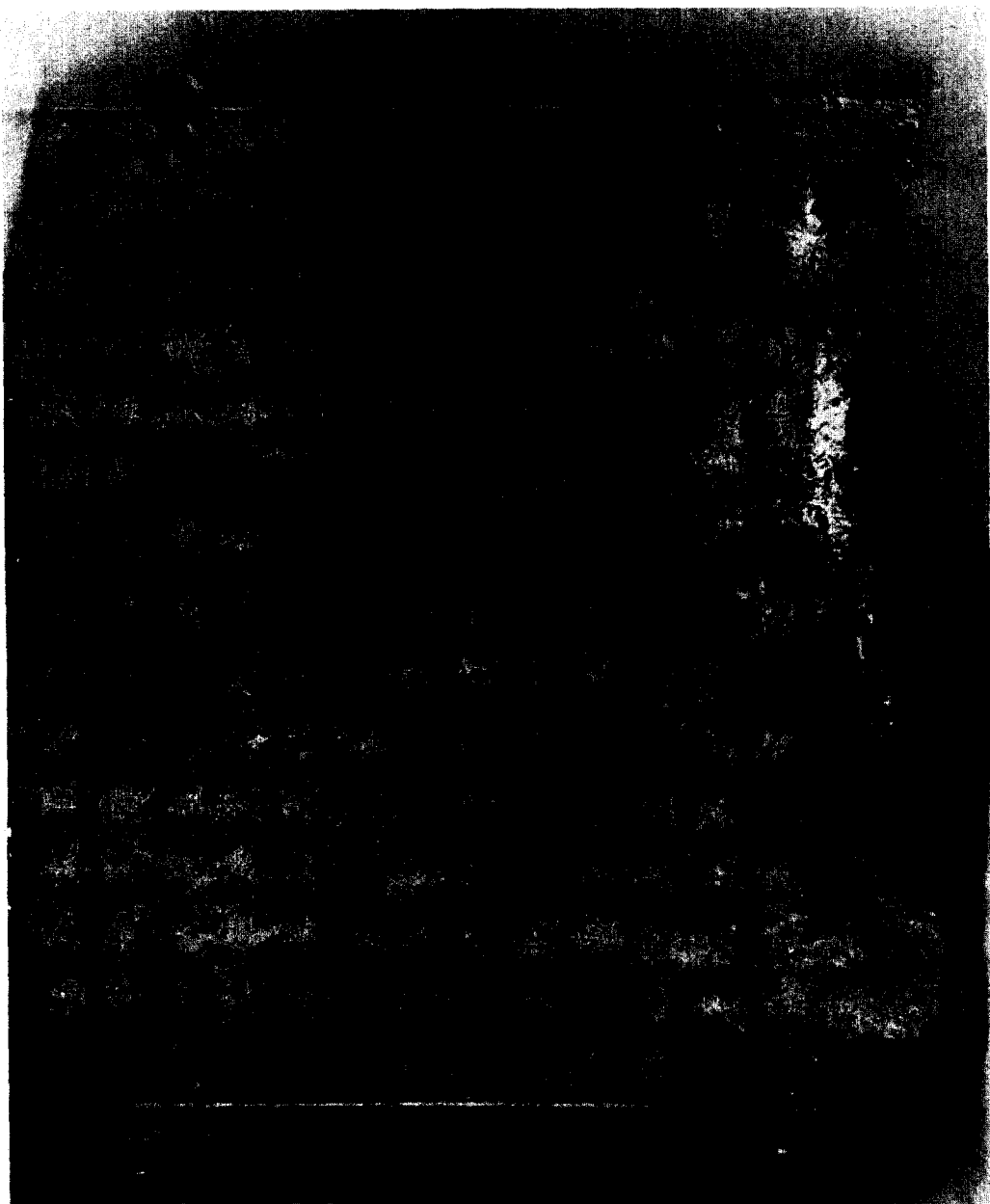
4. 舍利孔 全景 (調査時 方形石引揚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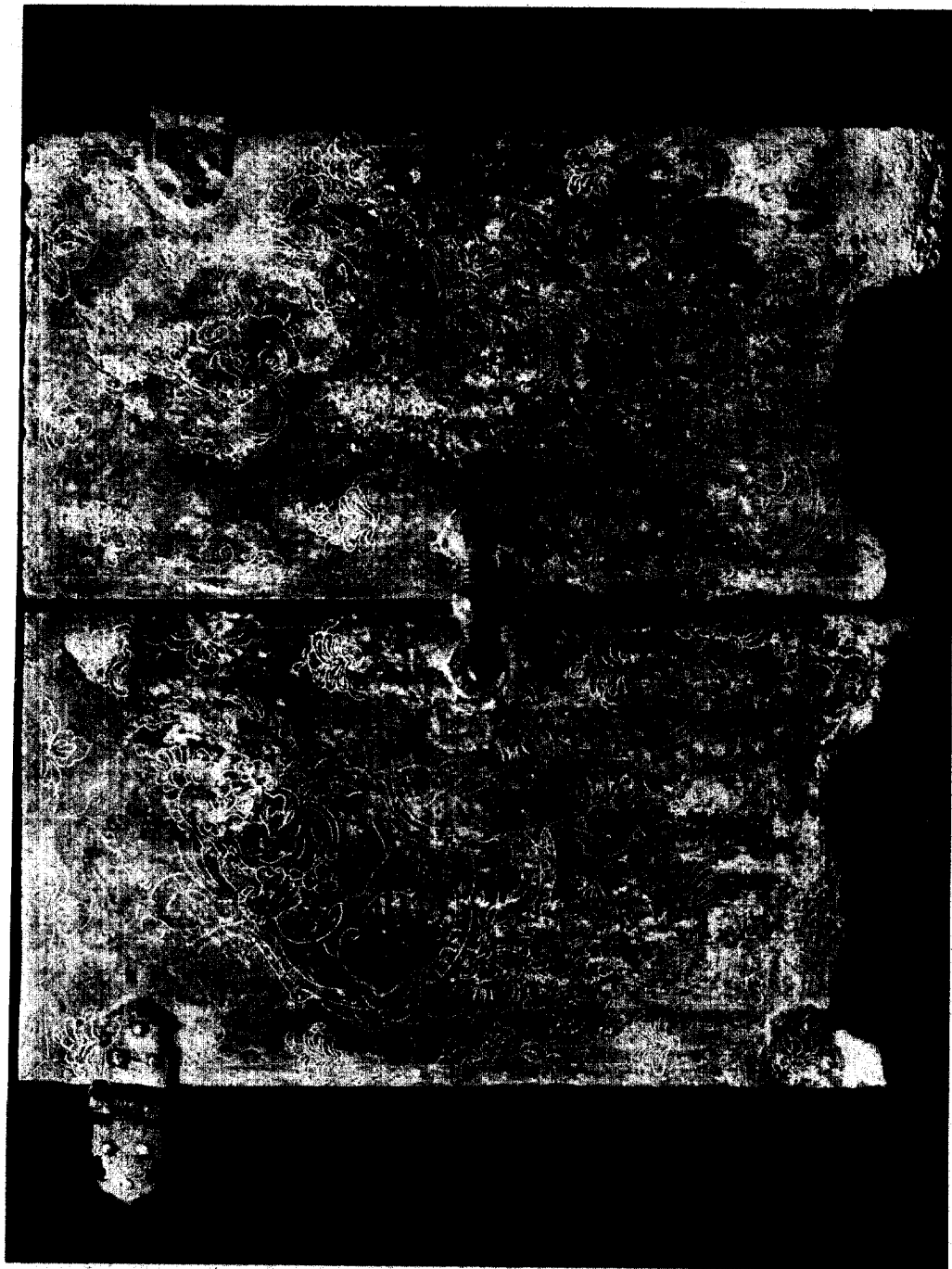
6. 金銅内函板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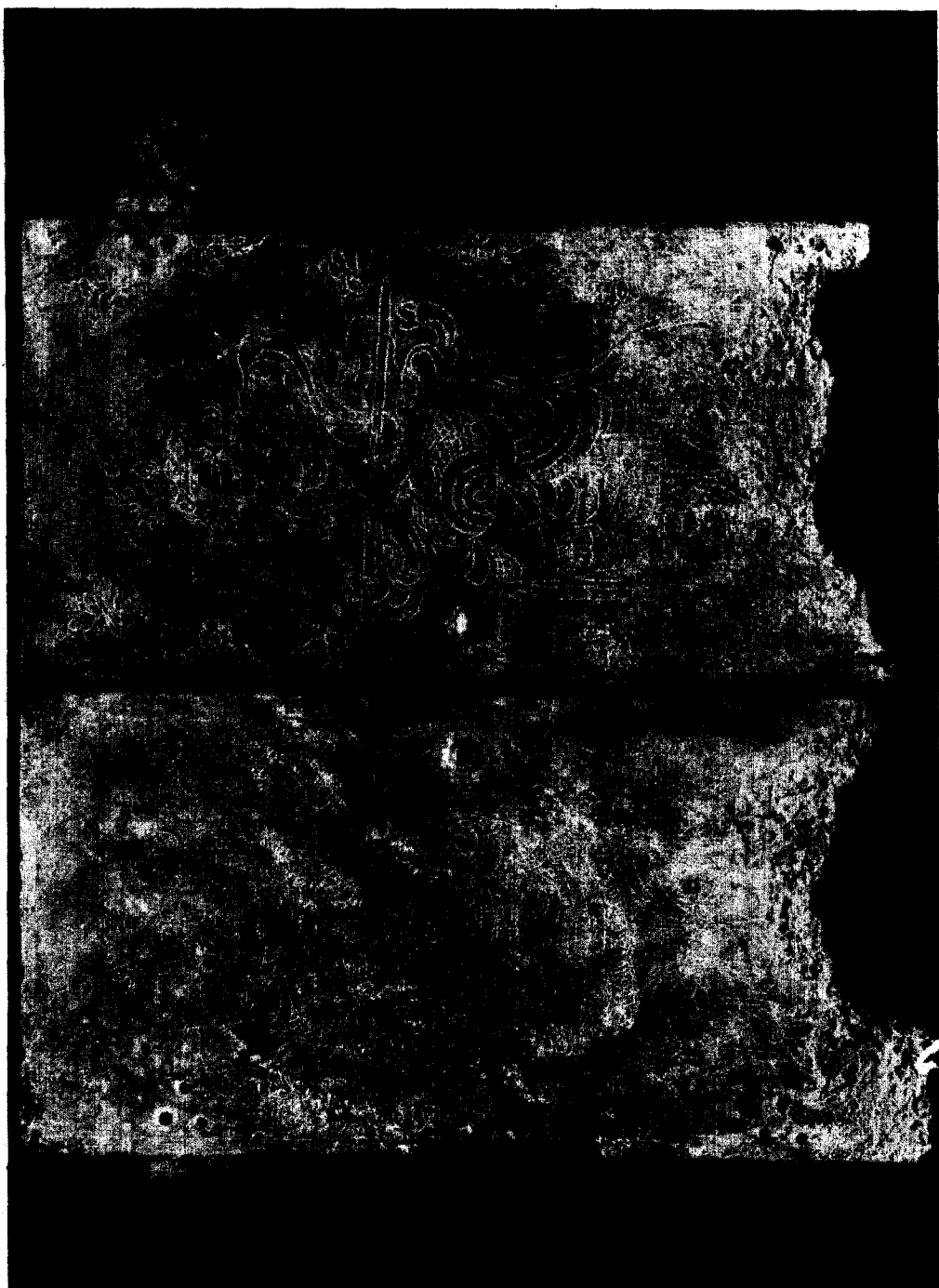
7. 同上 第一板 塔銘初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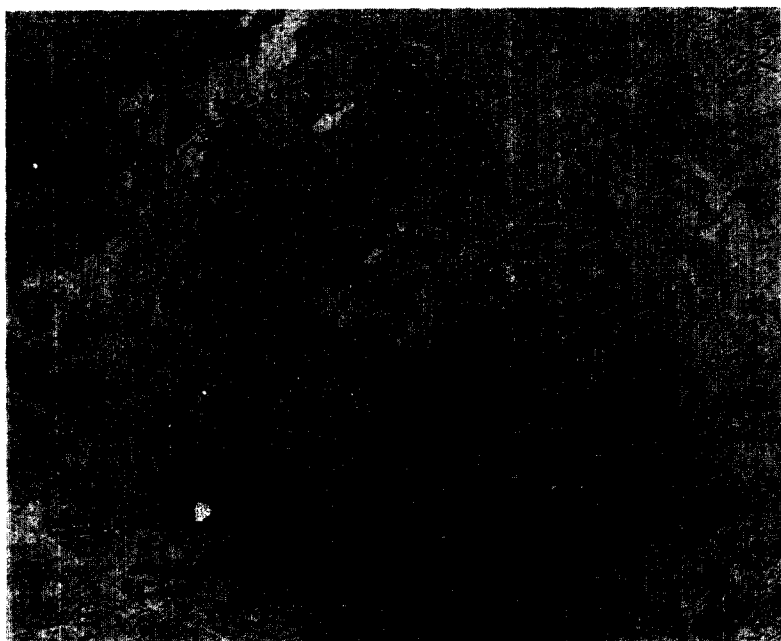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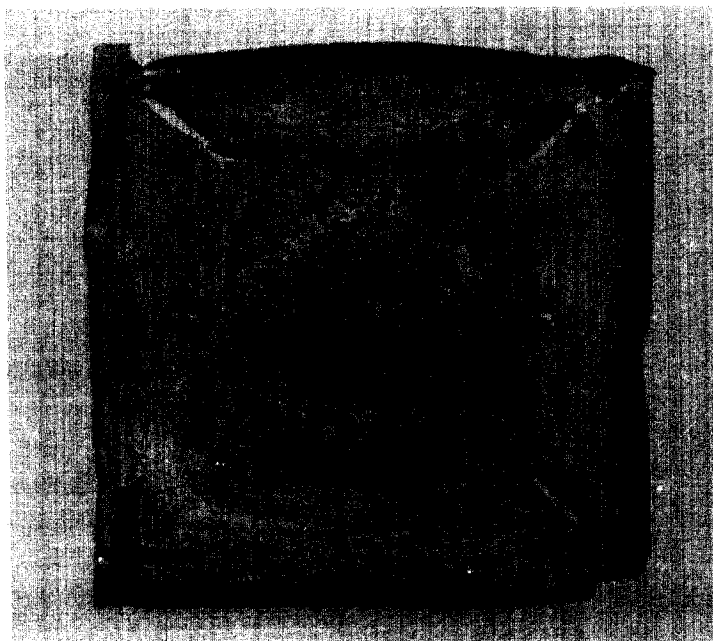
8. 金銅内函 第三板 銘文



9. 金銅内函 門扉 (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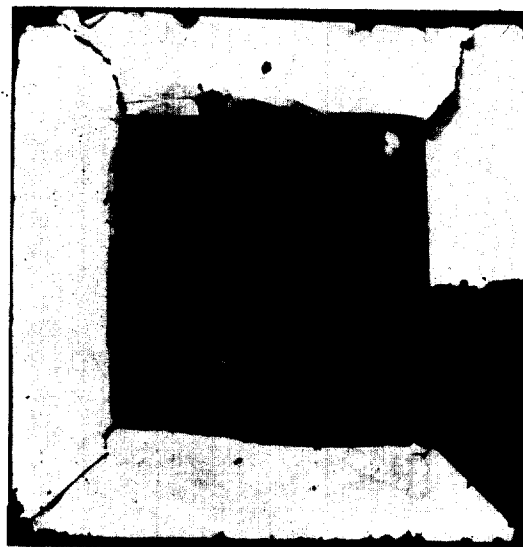
10. 金銅内函 門扉 (裏)



11. 金銅内兩蓋板斗紋様



12. 外函破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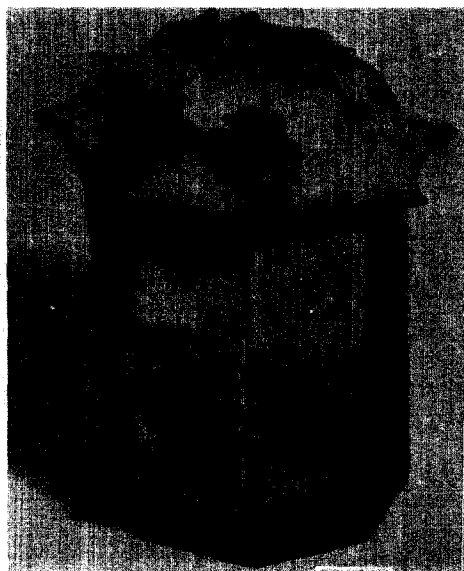
14. 舍利孔 上段 金銅具片



13. 外函 北壁板 (復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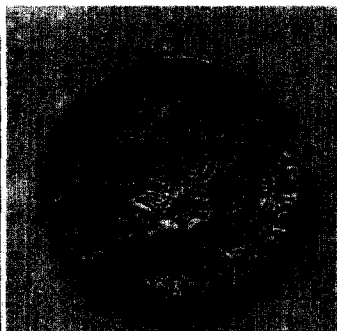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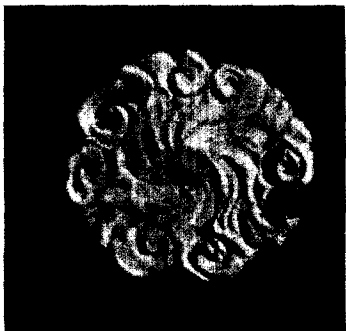
15. 舍利塔 兩基 破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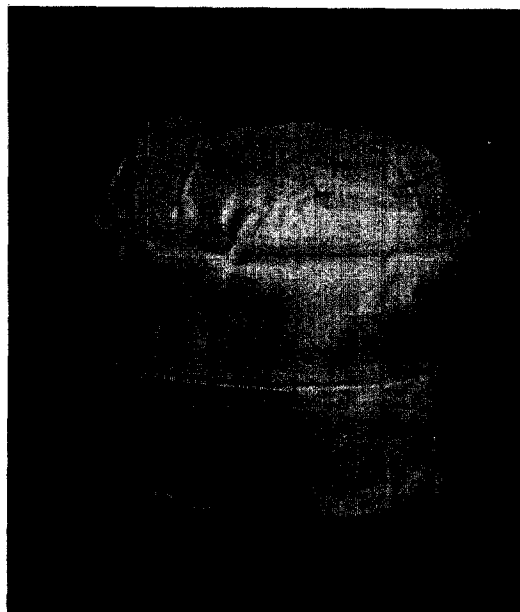
17. 金銅 舍利塔



16. 銀製 舍利塔



18. 銀製小圓盤 (三個)



19. 金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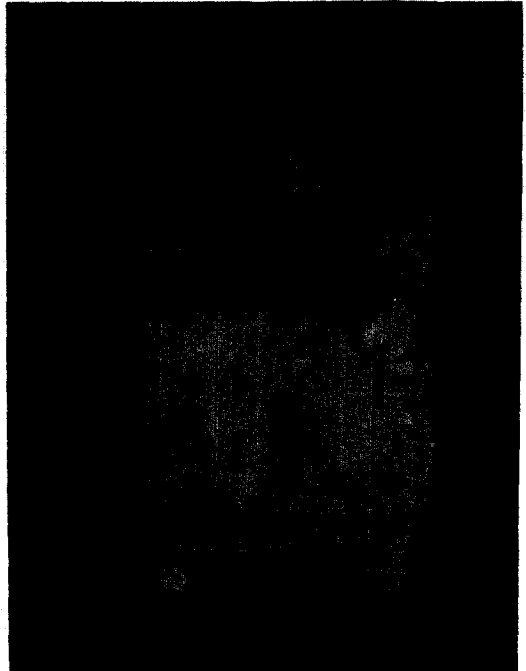
20. 銀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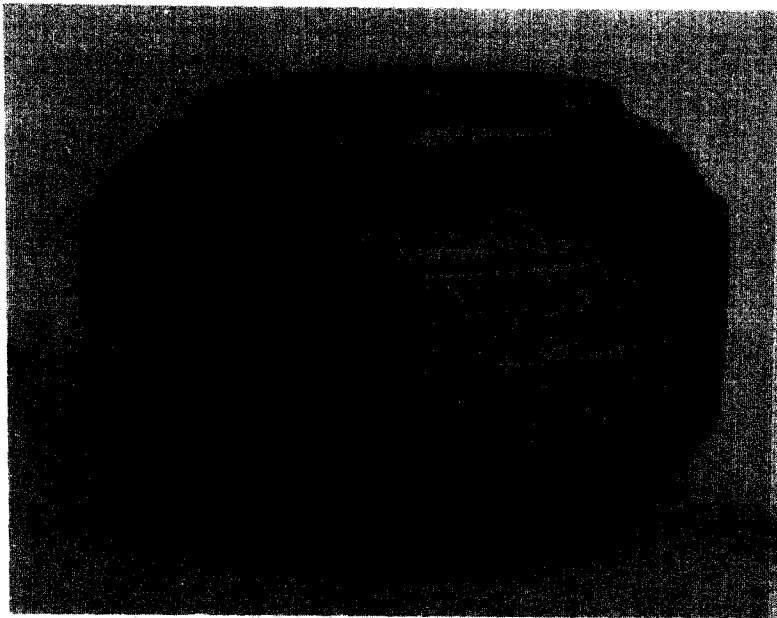
21. 유리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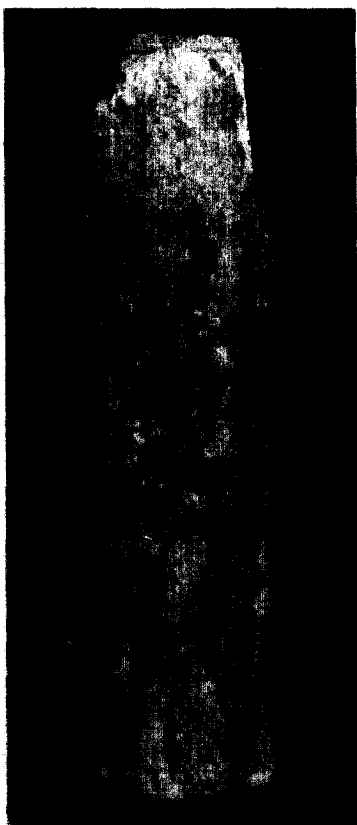
22. 青銅小圓筒



23. 青銅方形小函



24. 銀製圓盒



25. 仲和銘金銅圓套



26. 舍利孔方形石蓋

Inscription and Sarira Containers of Hwang-Ryong-Sa (皇龍寺) Temple Pagoda

Hwang, Su-young

Buddhism, introduced into the Korean Peninsula from the North during the latter half of the 4th century, was spread throughout the Three Kingdoms, Kokuryo, Backjae and Silla. They accepted it in sequence and established many a temple in a large and small scale. This phenomena began in the capital cities of the Three Kingdoms, spreading to small towns, and people devoted their faith to them. Among Buddhist temples, Hwang-Ryong-sa Temple located in Kyung-ju, the old capital city of Silla, wa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one for its size and historical significance.

Hwang-Ryong-sa Temple was established in the 14th year of King Jin-Heung (553 A.D.) and kept its glory for about 700 years, but was totally burned down during the Mongolian Invasion in the 25th year of King Ko-Jong (1238 A.D.).

This precious Buddhist temple of Silla was much more famous for the relics enshrined in sanctuary and the nine-storied wooden pagoda located at the south of the main hall. The size and height never to be seen before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agoda and Buddhist statue be named as two of the three national treasures of Silla. Moreover, Sam-Kuk-Yu-Sa (三國遺事) recorded the height of the pagoda by 225 feet, which was probably one of the highest of those days in the history of Korean Buddhism as well as in the oriental history.

The wooden pagoda was built in the 14th year of Queen Sun-Duck (645 A.D.), 90 years after the establishment of Hwang-Ryong-Sa Temple in supplication for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at the proposal of High priest Ja-Jang who came back home from China at that time. For its construction, Abiji was invited from Backjae and national power was mobilized in full force in pursuance of loyal order. We still can see the remnant of the basestones of the pagoda at Ku-Hwang-Dong in Kyung Ju. In the center, one big piece of natural stone was laid, on which another one is placed.

Buddha's sacred relics(sali), its container and other treasures had been enshrined in two-storied square hole under the stone for about 1300 years. In December, 1964, these were plundered by some robbers, who were captured two years later. Quite fortunately, now are kept these treasures in the National Museum. The writer who took part in the collection of relic containers of Hwang-Ryong-Sa Temple Pagoda is going to state it briefly in the present paper with their pictures and figures.

As mentioned above, the pagoda was established in 645 A.D., and remained untouched until its reconstruction after more than 200 years in the 12th year of King Kyung-Moon of Silla (872 A.D.). Looking about the pagoda and the relics, the King himself ordered a new addition of small stone pagoda and few pieces of sacred relics to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pagoda. Following the king's order, they kept in the relic hole the history of the great pagoda, reason for its repair, copper-plates with the names of officials and monks concerned. Therefore, the items found in 1964 can be classified into two parts, those before the reconstruction and those at the time of its reconstruction. By the efforts to decipher the inscription on the front and back of the three copperplates, the meaning of it was made public by the writer on the occasion of scientific lecture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Oriental Studies of Dan Kook University.

And it took the writer one year to dispose the remainder which will be explained in the latter part of this paper. First of all, the inscription is titled Hwang-Ryong-Sa Chal-Ju Bon-Gi (皇龍寺刹柱本記). The Chal-Ju is the wooden pillar which penetrates through the center of the wooden pagoda. It shows, in detail,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pagoda proposed by Monk Ja-Jang, and the repair of its inclination by king's order after about 200 years during the reign of King Kyung-Moon. The last part describes a new enshrinement and tells that King Kyung-Moon himself saw the original sacred relics kept under the pillar with his subjects. The inscription indicates that there was a stand of gold and silver on which a glass bottle containing sacred relics was put. Besides, on the back of the three copperplates we can read names of participants in the pagoda reconstruction. In the first line are shown the Sung-Chon (成典) of Hwang-Ryong-Sa the official system of the temple. This is an important fact found for the first time. Also we can read the facts that King's younger brother, Kim, Ui Hong, was in charge of the great project and Monk Hae-Heung,

was chief of Hwang-Ryong-Sa Temple, and famous monks of the time recorded in the same plates. In total 56 officials and monks were also recorded with their titles. Consequently, total more than 900 letters were deciphered on six sides of the three plates, which are considered to be new important materials for the further study of the history of Silla.

The rest was studied under three classification. First, there were a big outer box and a little inner box made of copper, containing relic container. The outer one was broken quite a lot, but two of the four sides were repaired, on which two standing statues of guardians were engraved in low relief. The lid covering the upper side has a big copper ring in the center. The letters were inscribed on three sides of the inner box, and the front side has two slidings, one standing statue of a guardian was carved on the front and back of each of the slidings, thus 4 statues in all. The boxes were covered with a square board, which has splendid flower designs on the front and back.

The second items include two small stupas: one is an octagonal copper and the other is of silver, both of which are imperfect. These were newly added during its reconstruction after the Silla's unification of the Three Kingdoms. The elaborate flower design was engraved, but they were covered with thick rust. Finally, the third items are considered to be very old with no certainty of being found in the pagoda yard. They are a golden box, a silver box, a small square copper box, a small copper tube and a silver vessel. Seven pieces of sacred relics were kept in a small copper tube. All of these were classified on the basis of certainty and are supposed to be found simultaneously in the Hwang-Ryong-Sa Temple. Thus, we may say that the sacred relic containers found in the Hwang-Ryong-Sa Temple not only show a great variety in their kinds but also bears a great significance in their quality more than those found in other Silla pagodas. Besides, another copper tube with some inscription was also found, but surely it had no connection with the Hwang-Ryong-Sa Temple Pagoda. Because it was also among the seized items, it is dealt within the appendix.

In the last part, the present writer expressed his own opinion about the huge piece of stone covering a square hole in which the relic containers were kept for a long time. In order to secure the ever-lasting preservation of relic containers which had remained on the originally-built spot for a long period after the complete burning up of the Hwang-Ryong-Sa Temple, this stone was presumed to be moved from some other

position in the temple area. The stone was assumed to be the sitting place of Ka-Sup Buddha in Hwang-Ryong-Sa Temple on the basis of the style and the small hole on its top. Sam-Kuk-Yoo-Sa has some records about this sitting stone that was kept at the rear of the hall. But it's also thought to be moved to the center of the pagoda yard after total destruction of the temple by fire. By doing so, preservation of the relic containers as well as the sitting stone was assured at the same time.

The writer gave efforts to the collection of valuable relics since 1964, and have been studying the relic containers for two years since taking up a position in the National Museum in 1971.

The contents of the present paper is as follows:

1. Introduction
2. Process of collection
3. Inscription
4. Relic container
 - a. Outer copper box
 - b. Inner copper box
 - c. Silver relic stupa
 - d. Octagonal copper relic stupa
 - e. Three small silver disks
 - f. small copper cover
 - g. Angle-shaped gold items
 - h. Gold vessel
 - i. Silver vessel
 - j. Glass beads
 - k. Small copper tube
 - l. Small square copper box
 - m. Round silver vessel
 - n. Flower-shaped items
 - o. Follower-designed copper piece
 - p. Copper piece

Appendix: Copper tube inscribed as the 3rd year of Jung Hwa(仲和)(883. A. D.)

5. Yon-Cha-Suk, (迦葉佛宴坐石) square stone on top of the Sarira Basestone.

Remarks